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2월 3일)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2월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인도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입재법회에서 상월결사는 전도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에서 온 불자들의 환송을 뒤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부처님을 직접 품에 안고 사르나트 녹야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상월결사, 인도서 '21세기 전도선언' 선포

2월 11일 녹야원서 입재법회
회주 자승 스님 직접 낭독해
1167km 인도순례 여정 의미
'전법 포교'에 있음을 재확인

인도=노덕현 기자

"수행자들이여,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라."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21세기 신(新)전도선언'이 울려 퍼졌다. 불교 중흥을 기치로 인도에서 순례를 이어갈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1167km 여정을 본격 시작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인도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입재법회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의원 보선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장재복 주인도대사, 산카 미쉬라 유피주 보건장관, 보드가야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 등 10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사르나트에는 외국인 스님 등 100여 명의 해외불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입재법회에서는 회주 자승 스님이 상월결사 인도순례 전도선언을 직접 낭독하며 이번 순례가 새로운 전법 포교의 기치를 건 과정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전도선언은 21세기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어떻게 전법·포교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자승 스님은 "수행자들이여, 법을 전할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의 공덕으로 삼으면 이 또한 법을 먹고 사는 아귀와 같으니 그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길을 나서라"며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선언했다.

스님은 이어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뤄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라고 밝혔다.

순례단은 전도선언과 함께 순례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러한 순례단을 응원하는 각계 축사도 이어졌다.

장재복 주인도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큰 행사로 상월결사가 신호탄을 쏘아 올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순례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국대사관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산카 미쉬라 유피주 보건장관은 "한국 불교의 뿌리가 인도에 있기에 여러분은 외국인으로서 인도에 온 것이 아니라, 옛날의 집을 찾아 오신 것"이라며 "43일간 1100여 km의 순례단의 일정은 많은 부분이 유피주에서 이뤄진다. 유피주 주지사님도 스라바스티, 쿠시나가르, 럭나우 중 한 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안전 문제 등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법회서는 한국에서 이운하여 순례에 모실 목조부처님을 점안하는 의식과 한국에서 공수한 108m의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목조부처님은 40cm로 5kg으로 제작됐으며,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원들이 번갈아 순례단 선두에서 이운했다.

인도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하에 순례단은 안전하게 첫날 순례를 시작했다. 순례단의 앞에는 사르나트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교기와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순례단을 응원했다.

〈관련특집 2 · 3면〉

전 문

상월결사 인도순례 전도선언문

수행자들이여,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겨 버리는 쾌락의 길과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에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여래는 중도를 잘 알아차려 마침내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학인이여,

중도는 여덟 가지로 되어 있다. 팔정도는 진리에 이르는 바른 길이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니 실행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이다. 이 길을 걸어가면 더없이 밝고 높은 진리의 세계에 이르노라.

수행자들이여,

법을 전할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전하는 법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 너희들은 교만해지기 쉽다. 자기만의 공덕으로 삼으면 이 또한 법을 먹고 사는 아귀와 같으니, 그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길을 나서라.

수행자들이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법을 설하라. 완전히 이루어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

강진 피해 튀르키예-시리아 불교계 구호기금 보시 잇달아

조계종, 대사관에 2억 원 전달
본지, 아름다운동행과 캠페인



조계종은 2월 13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2억 원을 기부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자비손길이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은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튀르키예 대사관에 구호금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2월 13일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위로 방문, 전국 불자들의 마음이 담긴 구호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조계종을 대표해 대사관을 찾은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먼저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지진으로 희생된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한다' 는 애도의 글을 남기고 이어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성화 스님은 "불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복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의 행복 되찾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무랏 타메르 주한 대사는 어려운 시기,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고 마음을 전달해 준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사는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형제의 국가'를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대위기는 어떤 나라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인해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조계종은 이번 구호금 전달 이후에도 전국 불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계종이 발 빠르게 구호금을 전달하자 불자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2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현진 스님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에게는 형제의 나라"라면서 "불자들의 정성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금 캠페인을 지속해, 추후 기금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과 쿠무다 재단 임직원도 같은 날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다.

주석 스님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종단에서 우선적으로 2억 원을 기부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통한 기금 모연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대운사 사부대중도 모연에 동참키로 하고 사중에서 500만 원, 신도들이 500만 원을 모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2월 16일 아름다운 동행에 사중 스님과 신도들이 모은 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가족과 친구들 잃는다면 그 충격이 크다. 이들을 위한 자비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기부에 동참해준 조계사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현 스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 직후,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들에게 싶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아직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많은 분들이 조속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주관으로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한다. 모연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되며 사태 수습과 재건복구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모금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02)737-9579

신성민 · 임은호 기자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익산삼사순례 - 미륵사지 · 심곡사 · 숭림사
삼사순례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하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

익산시가 불자님들의 삼사순례를 앞두고 초청장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고도 백제의 왕도로서 불교 관련 유적과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세계유산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은 선인들의 신앙과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고, 힐링과 기도를 만날 수 있고, 둘러보면서 행복과 환희를 품을 수 있는 불자들의 순례지입니다. 2023년은 때마침 익산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삼사순례와 방생 행사를 반겨 맞이하고자 합니다. 미리 방문을 알려주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안 내 처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1577-0072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백제역사유적 탐방 미륵사지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절터에 지금은 동탑과 서탑도 복원돼 관광객들과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백제 무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심곡사
깊은 골짜기라는 이름의 천년고찰, 7층석탑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떡목을 지닌 정정렬 명창의 득음을 기념하기 위한 떡목공연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왕궁리유적
아름다운 오층석탑과 왕궁터가 남아서 백제부활을 꿈꾸던 무왕의 웅지를 보여줍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줍니다.


힐링생태여행 숭림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보광전과 그안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 딱 인생샷 배경으로 그만입니다.


데크, 연꽃, 하늘, 구름 용안생태습지공원
금강 상류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휴식과 방생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는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로부터 동쪽에 위치한다. 2월 15일 새벽 보드가야로 향하는 순례단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

날마다 수행…역경은 신심·원력으로 극복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① 서울서 인도 체나리까지(순례 1주차)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매일 새벽 3시부터 행선 시작

정오까지 행선…저녁엔 108배

금강경 독송하며 자율 정진도

인도인들 환대, 석가족들 예경

환자 속출해도 "이것도 수행"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길을 나서면 우리는 안온한 안식처를 벗어나 툭 트인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길을 떠난다. 태어나 살고 죽는 모든 여정이 바로 길이다. 그 일부나마 부처님께서 걸었던 길을 함께 해보는 것은 다시 없을 경험이다.

2월 9일 조계사에서 고불법회를 한 뒤 인도로 향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가장 먼저 부처님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로 향했다.

사르나트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곳이다. 부처님도 자신의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전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를 떠올렸다. 선각자였던 알라라칼라마와 웃다카라마풋타는 이미 세상을 떠나 없었다. 부처님은 함께 수행했던 다섯 수행자를 떠올렸다. 부처님은 갠지스강을 건너 당시 다섯 비구가 수행하고 있던 사르나트에서 마침내 이들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한다.

사르나트에 도착해 숙소를 배정받은 순례단은 부처님이 다섯 수행자를 만난 자리 '차우칸디 스투파' (영불탑)을 참배하고 바로 이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 녹야원을 참배했다.

부처님을 이단시했던 꼰단냐, 왑빠, 밧디야, 마하나다, 앗사지의 다섯 수행자들은 부처님께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듣고 차례로 아라한과를 얻었다. 사르나트는 이들 다섯 비구가 탄생한 곳이며 우바새인 야사, 그리고 그의 아버지, 또 우바이인 그의 아내 등이 불교에 귀의해 사실상 불교 교단이 최초로 형성된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순례단의 마음은 무거워 보였다. 사르나트 녹야원 현장은 유적만 남아있어 안타까움이 더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이 사르나트에 칙령을 새긴 석주는 흔적만이 남았으며, 부처님이 설법한 자리에 세워진 다메크 스투파 옆의 100m 높이에 달했다는 부처님 사리를 담은 스투파는 기단부 흔적만 남아 있었다. 한때 1500여 명의 승려들이 살고 있었던 기록을 뒤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불교의 과거를 보자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순례단 모든 일정이 수행

2월 11일 입재법회를 마친 인도순례단은 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순례에 들어갔다. 이들은 람라가르의 바라나시 수운선착장에서 4일차 행선을 시작했다.

순례기간 무더위와 새벽 추위, 위생이 열악한 화장실과 벌과 모기, 배앓이 등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를 이겨내는 힘은 바로 '신심'이다. 순례단의 행선 시작은 공식적으로는 3시에 시작이지만, 새벽 1시 50분이면 사실상 시작된다. 도량석 전부터 미리 준비를 끝낸 스님들이 솔선수범하여 정리정돈을 돕는다. 도량석 이후 진행되는 순례고불은 2월 11일 점안한 인도에서 조성한 하얀 '큰 부처님'과 봉은사에서 조성한 목조 '작은 부처님'을 앞에 모시고 엄숙한 가운데 진행된다. "우리의 걸음은 신행 원력의 희망으로 삼아 가슴에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을길 골목길 흙길 물길 모든 생명이 평등한 깨달음의 길을 부처의 눈으로 함께 걷겠습니다"는 발원 하에 발걸음을 뗀다.

4시간 가량 행선이 이어진 뒤 순례단은 아침공양을 한다. 공양도 수행인만큼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오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라는 공양기도문을 독송한다.

순례 일일회향 이후에 저녁 6시면 피곤함을 뒤로 하고 예불과 함께 108배를 진행한다. 2월 12일 저녁부터는 각자의 텐트에서 총도감 호산 스님의 집전 하에 〈금강경〉 독송도 시작했다.

예견된 고행길, 그래도 나아간다

순례 7일차부터 순례단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낯선 인도에서 순례 중 몸이 불편한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도보거리가 135km에 이르자 무릎이 아프거나 족저근막염, 물집 등이 순례단원에게서 발생했다. 인도 환경에 적응과정에서 배앓이 등을 하는 이들도 종종 보였다.

하지만 순례단은 몸이 안좋으면 잠깐 차를 탔어도 이내 회복해서 행선에 참여했다. 낯선 환경으로 힘든 것은 한국에서의 3년의 순례보다 더했지만 이들이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힘찼다.

무릎이 불편해 행렬 후미에서 행선을 진행한 대변인 종호 스님은 "이 행렬에서 빠지면 안된다. 어떤 행렬인데"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우리가 부처님이 걸은 길을 함께 걷는 매 순간이 환희로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순례에 이어 인도순례에 동참한 3조 선지 스님도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진행된 자비순례 당시 아팠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지만 순례행렬에서 도반들과 함께 행선을 진행하고 있다. 선지 스님은 "이번 순례는 금생에서의 최고의 선택"이라며 "인도의 부처님 성지와 부처님께서 거쳐가신 길을 직접 한번 밟아보고, 따라 걷는 것이 수행자로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과 인도에서 스님들이 불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행선에는 순례단의 신심과 원력만이 순례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아니었다. 지원팀이 준비한 여러 가지 배려가 순례단을 기쁘게 하는 작은 행복이었다. 조금이나마 순례단을 돕기 위해 숙영지마다 짐이 옮겨지고 부족하나마 물탱크를 준비해 위생에 신경 썼다. 인도 경찰의 협조로 밤에는 경비 속에 안전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김명숙 의료팀장을 비롯한 의료진의 보살핌도 이어졌다.

2월 13일 회주 자승 스님의 당부 이후에 조치가 더해지고 있다. 2월 15일 새벽 6시에 진행된 아침공양에는 추위에 떠는 순례단을 위해 따뜻한 국수가 공양 올려졌다. 지원팀이 인도에서 준비한 소면국수 한 그릇은 새벽녘 추위 속에서 행선을 진행한 순례단에 행복을 선사했다. 지친 와중에서도 순례단에서는 미소가 피어났다. 점심공양부터는 배앓이 등으로 속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쌀밥을 끓인 미음도 함께 제공됐다.

몸이 다소 불편한 가운데서도 고령에도 행선을 이어오고 있는 6조 비구니 정혜 스님은 "내가 아프다, 불편하다 소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기에 아프다고 소리 안하고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이들의 마음이 다 느껴진다"며 이어 "우리의 순례로 이 곳 인도에서도 전세계 사람들이 성지를 걷는 순례를 한다면 불교가 자연스럽게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석가족 찾아 예경…현지 관심 고조

한국불교 순례단은 인도인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호기심은 이내 신심으로 변화했다.

2월 13일 진행된 순례에서는 불자마을인 새드푸르 마을을 시작으로 벤, 띠여리, 말덴, 쉬브람푸르까지 인도 현지 불자들의 환영이 이어졌다. 아침공양 장소인 새드푸르 마을의 키산 초등학교(인터 칼리지)에 도착하니 학교 교장과 마을 이장부부, 경찰 관계자 등이 순례단을 기다렸다. 이들은 순례단에게 꽃목걸이를 건네고 축원 발원하며 꽃을 뿌렸다.

초등학교에 환영 플래카드를 건 키산 초교 교장 라제쉬 쿠마르 씨는 "한국 불자들이 부처님의 땅 인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특히 우리 학교가 공양 장소로 사용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불교기를 앞세우고 한국과 인도불자들이 함께 걷자, 그동안 호기심으로 보기만 했던 인도주민들이 환호와 축원을 보냈다. 불교사원 마핸드라 보디 스님을 비롯해 불자들이 불교기를 들고 유피주에서 비하르주로 주 경계를 넘어서까지 순례단의 행선에 동참했다. 인도 힌두교에서 부처님은 9번째 신으로 모셔지지만 힌두교 신자 중 부처님 상을 보아도 공경을 표하는 이는 드물었다. 무엇보다 낯선 복장과 군경의 엄호 속에 진행되는 순례단을 호기심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 불자들이 순례 선두에서 함께 하자 인식이 바뀌었다.

마핸드라 보디 스님에 따르면 새드푸르 마을에는 2000여 주민 중 불교신자들이 400여 명에 달하는 인도 속의 불자마을이다. 스님은 새드푸르 마을이 속한 찬덜리 지역에도 매우 많은 수의 불자들이 살고 있음을 전했다. 부처님 제자들이 2500여년 만에 다시 부처님 나라인 인도를 방문 한 것에 대해 스님은 "한국불자들의 방문에 환희심을 느낀다.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르나트가 있는 우타르프라데쉬주와 보드가야가 있는 비하르주는 예로부터 불교 유적이 많은 곳이고, 인도 내에서는 불교신자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주 경계에는 다른 의미의 불자들이 있었다.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사라졌지만, 사회 구성을 이룬 계급제도 하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천민 계층들이 그들이다. 암베르카르 박사에 의해 불교신자로 개종한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왔다. 넉넉함이 없지만 그들이 준비한 꽃 공양도 순례단에 감동을 주었다.

순례 6일차인 2월 14일에는 반가운 가족이 순례단을 찾아왔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예인 석가족들이다. 바부아에는 석가족 집성촌이 있고, 한국스님들이 바부아에서 묵는다는 소식을 들은 석가족들은 크라켓 경기장에 마련된 숙영지에 뒤늦게 찾아와 꽃공양을 올렸다. 석가족들은 한국불자들의 방문으로 이 지역의 불심이 크게 융성할 것이라며 기대와 함께 감사를 표했다.

바부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석가족 람져스 쿠스와하 씨는 "이렇게 멀리 한국에서 순례단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석가족 마을을 한국불자들이 지나가서 너무나 기쁘다"며 "이 길을 따라 부처님도 예전에 지나갔다. 부처님 법이 인도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에서 그 법을 이어 다시 인도에 가져다 준 것 같아 감사하다. 불자들이 별로 없었지만,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방문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소수인 이들에게 한국불자들의 순례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는 것 같아 보였다. 인도 현지에서의 전법 포교는 순례단의 행선 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어제 400여 명의 불자들이 있다는 새드푸르부터 이 지역까지 많은 이들의 환대를 받았다. 오늘 방문한 석가족 분들이 지역 불심이 활성화 된다고 하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견디기 힘든 어떤 것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격려해주는 이들이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 불교 중흥도 인도순례단과 같이 사부대중이 함께 한다면 머지않은 일일 것이다. 순례 1주차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석가족 불자 대표가 회주 자승 스님에게 공경의 의미로 절을 하고 있다.



새드푸르 마을의 키산 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이 꽃을 뿌리며 환영하고 있다.



순례 일일 회향 무렵, 순례단이 모시고 있는 작은 부처님은 꽃으로 장엄됐다.



매일 새벽 행선 전 하얀 큰 부처님께 발원문을 올리는 고불의식을 하고 있다.



2월 10일 사르나트에 도착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다메크 스투파 일원을 행선하고 있다.

“우리 한걸음이 뭇중생 불연 맺기로 이어지길”

자승 스님, 2월 10일 녹야원서 첫 법문… “차별없는 정진” 당부

“포교만이 조계종단의 살 길
매 순간 수행이라 생각하자”

“43일 갖은 어려움 예상되니
순례 기간 상호 배려” 당부
순례단 마음가짐 새로 다져

인도 사르나트=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월 10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사르나트 녹야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서는 이례적으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자승 스님은 중국 선종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에 나오는 첫 문장 ‘지도무난 유혐간택’ (至道無難 唯嫌揀澤)을 건네며 분별심 없고, 차별없는 정진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아홉 스님의 엄동설한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3년간 국난극복 자비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평화방생 순례를 진행하며 회향에 앞둔 자자 때마다 사부대중이 차별없이 함께 정진하고 그 원력을 바탕으로 전법포교를 활성화하여 불교 중흥을 이끌자고 강조한 바 있다.

스님은 “여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신도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신도들도 스님들에게 많이 들은 법문이 있을 것이다.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깨친다고 우리 스님들이 한 이야기다. 그런데 스님 2000명씩 앉아서 정진하지만 깨우쳤다고 법문하고 나서는 이가 없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다보니 도를 이룬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우리가 깨달음 자체를 어렵게 생각해서 깨달아도 깨달았는지 모른다. 신통방통 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이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며 “열심히 정진하면 이치는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가 순례를 하려는 순간 다 내려놔야 한다. 누구 하나의 공도, 화도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 까지 3년을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 43일의 인도순례는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 뿐”이라고 당부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2월 10일 초전법륜지 녹야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사부대중 신심 진작, 불교 중흥

스님은 또 유적만 남은 인도 성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전법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이 자리가 기독교 성자의 자리라고 하면 과연 유적만 남아있을까, 우리가 순례하는 8대 성지는 유적만 남아 있다”며 “그렇다면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과연 어떨까. 문화재이기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20년 후면 이 같은 유적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스님은 “늘 포교 만이 우리 종단의 살길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며 “순례를 지켜보는 불자들이 신심을 내고, 그 신심을 낸 불자들이 이웃종교인, 무종교인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불교 중흥이자 순례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인도순례에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청한 순간부터가 바로 순례이며 수행”이라며 “우리의 순례는 2월 9일 종정 스님을 증명으로 고불문을 올릴 때부터 시작됐다. 매 순간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자승 스님은 “순례단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주요 사찰 주지 스님 등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도들에게 대접받을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함께 하고 있다. 사회에서 위상있는 재가자들도 마찬가지다”며 “여기서는 자승도 똑같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걷고, 똑같이 자며 차별이 없고, 청규와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순례로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법문에 대해서는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걸으면서 입재와 회향식까지 대중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삼보사찰 순례 입재와 해제 당시 대중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인도순례는 시작부터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비심으로 거둔 인도 강아지 ‘순례’

1주차 상월결사 인도순례 이모저모

2월 13일부터 순례단과 동행
인도 불자마을서 찾아온 생명
어미 잃은 듯 마르고 힘 없어
묵언 중인 덕조 스님이 보살펴
수행 우려에도 “이 또한 수행”

생명존중을 기치로 인도 부처님 성지를 순례 중인 순례단이 자비심으로 하나의 생명을 순례대중으로 맞이했다. 바로 강아지 ‘순례’ 다.

2월 13일 불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피주 새드푸르에서는 한 강아지가 아침공양 장소였던 키산 초등학교(인터컬리지)에 찾아왔다. 어미가 없는 듯, 비쩍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강아지는 마침 마을주민들의 환대에 화답하고 있던 회주 자승 스님 곁으로 다가갔다.

인도주민들의 요청으로 스님들과 주민들이 사진을 찍던 그때 회주 스님 앞에 있던 그 강아지에게 순례 대중 스님 중 한명이 말했다. ‘앉아’. 신기하게 말을 알아듣는 듯 이 강아지는 사진 찍는 내내 영특하게 알아듣고 따랐다.

이후 순례단은 다시 행선에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어귀까지 순례단을 환송했다. 어귀까지만 따라오는 줄 알았던 이 강아지는 마치 순례단을 외호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왔다. 따라만 왔으면 뒤로 쳐져 다시 마을로 돌아갈 줄 알았건만, 순례단에 앞서서 길을 열었다.



2월 13일 순례단에 합류한 인도 강아지. 자승 스님은 강아지 이름을 ‘순례’로 붙였다.

결국 이 강아지는 주 경계를 넘어 순례 회향지인 비하르주 쉬브람푸르까지 함께 했다. 작은 강아지가 하루 20여 km를 걷는 순례 일정을 함께 하기는 무리다. 더군다나 이 강아지 몸에는 이와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어 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먼 곳까지 이미 순례단을 따라오고, 어미가 없어 마치 스님들을 어미처럼 따르는 강아지를 굳이 내칠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인도에서는 들개들이 적게는 2~3마리, 많게는 십 수마리가 떼를 지어 다닌다. 내쳐진 이 강아지의 미래는 뻔했다.



‘순례’가 덕조 스님의 무릎에서 자고 있다.

결국, 회주 자승 스님은 생명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순례단에서 이 강아지를 보살피기로 했고 이름을 ‘순례’라고 했다.

강아지 순례는 유난히 덕조 스님을 따른다. 후문에 의하면 덕조 스님이 취침 전 씻기고, 먹을 것을 챙겨준다. 묵언 수행 중인 스님도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엾은 중생을 보살핀다는 마음에서 또 다른 수행으로 순례를 살피고 있다.

덕조 스님과 같은 조에서 순례 중인 선광 스님은 묵언 수행 중인 스님을 대신해 “전생의 업으로 개로 태어났지만 회주 스님과 순례단 스님들을 만나 그 인연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훌륭한 수행자가 될 것이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깨달은 선지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강아지가 있던 마을에서 우리로 치면 백리길이 넘게 순례단을 홀로 따라왔다. 짐승이라고 보면 신경이 많이 가겠지만 인연이 깊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더불어 사는 도반”이라며 “더군다나 부처님이 가셨던 길에서 거둔 생명이니 이것 또한 수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2주차(2.16~2.22) 순례 일정은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서 법회 ‘장엄’



2주차로 접어든 상월결사 순례단은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로 나아가게 된다. 2월 16일 사사람에 도착한 순례단은 숙소에서 개인정비를 취한 뒤 17일부터는 다시 숙영하며 보드가야로 행선하며 순례를 진행한다.

2월 21일 보드가야에 도착한 순례단은 수자타 마을을 순례하며, 2월 22일에는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 오전 8시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보드가야는

보드가야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은 장소로 유명하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아쇼카왕이 세웠다는 마하보디 대탑이 서 있다. 높이가 55m나 되는 이 탑은 방추형의 9층탑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웅대한 탑이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임명…안정화 '박차'

진우 스님, 임명장 전달…"위상 회복 진력을" 당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에 혜일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2월 15일 경내 관음전에서 임회를 열고 혜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임회에서 원각 스님이 직접 주지 후보로 혜일 스님을 추천했고, 참석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추천에 동의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법보종찰로 그 위상이 크다. 최근 불미스런 일들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면서 "그간 혜일 스님께서 교육원장 소임을 맡고 있던 만큼 스님의 부재는 종단 종무행정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다. 그럼에도 해인사가 가지는 위상이 있기에 혜일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보내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혜일스님 "원융화합 통해 정상화"
주지 추천 일련 갈등들 진정 국면
해인사 "능력 출중…안정화될 것"
비대위 "환영 입장, 화합 운영을"

이어 "혜일 스님께서는 해인사가 빠르게 정상화돼 법보종찰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머리를 풀은 혜일 스님은 "교육원장 소임을 맡으며 종단 출가자를 200명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죄송하다"면서 "또한, 해인사 재적승으로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 불자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이 2월 16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어 "해인사 교구장으로 임명된 만큼 원융화합해 법보종찰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교구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해인사 주지로 혜일 스님이 임명됨에 따라 범계 의혹으로 인해 현응 스님이 주지를 사퇴하며 벌어진 해인총림의 일련 갈등이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월 15일 임회 추천 직후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지 후보로 혜일 스님은 교육원장 소임을 맡을 정도로 종무행정 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해인총림의 조속한 정상화와 위상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를 제기해 왔던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긍정적 입장이다. 비대위 대표 성공 스님은 "혜일 스님은 능력과 성품이 뛰어나신 분이다. 주지 후보 추천을 환영한다"면서 "혜일 스님이 주지 임명을 받게 된다면 원융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인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4·15·17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종립학교관리위원장, 성남 봉국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후보에 도신 스님 추천

2월 14일 임회서 만장일치로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후보로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 도신 스님(서산 서광사 주지, 사진)이 추천됐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2월 14일 경내 황화정루에서 제56차 임회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로 도신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8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도신 스님은 재심호계위원과 초심호계위원,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초심호계원장과 서광사 주지, 수덕사 성보박물관장 등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전주시 시정 홍보는 교회에서만 하나?

'동 순방' 대부분 교회서 진행
"가능 시설 찾은 것 뿐" 해명
교계 "공공기관이 기독 편향"

전주시(시장 우범기)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동 순방'에 나서면서 주민들과 만나는 장소를 대부분 교회로 선정해 "특정 종교 홍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불교계는 "공공기관의 행사로는 이해할수 없는 장소"라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는 2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35개 동을 순회하며 전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청이 2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이번 동 순방은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순방'은 민선 8기 전주시정 비전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실현을 위해 각 동별로 △동 현황 청취 △2023년 시정운영 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갖겠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35개 각 동별로 유관기관·단체장과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대표 100~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순회 장소가 대부분 교회로 설정되면서 불거졌다. 현재 공개된 2월 16일부터 3월 9일 일정에 따르면 총 13회 일정에서 8회가 교회, 1회는 성당에서 열린다. △여의동 동산교회·송천1동 사랑의교회(2월 17일) △평화1동 전주제자교회(2월 20일) △노송동 서은침례교회·풍남동 전동성당(2월 23일) △중앙동 성암교회(2월 27일) △동서학동 남성교회(3월 7일) △송천2동 새벽별교회(3월 9일) 등이다.

동 순방 일정 중 70% 정도가 교회에서 진행되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센터와 학교 강당 등 종교와 무관한 장소가 있음에도 굳이 교회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자치행정과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전주시의 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1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인원과 주차장, 영상자료 등이 가능한 곳을 살펴보며 종교시설뿐 아니라 각종 센터와 식당까지 살펴보고 정한 장소"라고 해명했다.

'동 순방'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불교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제17교구 금산사 사회국장 우림 스님은 "과거에도 지자체의 종교편향 논란이 있었지만 전주시의 이번 행태는 공공기관의 행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파악한 후 교구 종무회의를 통해 총무원에 보고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교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도 "과거 특정 종교의 투표소 설치, 대구시 합창단의 종교편향 논란 등 공공기관의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일이 일어난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

재가자들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전주시의원에 항의하고 시청 비서실 등을 통해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교계 단체가 정식으로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 항의 방문과 함께 1인 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은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공간을 지금이라도 찾아 장소를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은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셔주세요"

마애불 바로모시기 불사 기금 전달 잇달아

명수 스님 3000만원 쾌척해
50년 적립했던 보험금 전액
부산연꽃모임 1100만원 전달

원로 비구니 스님이 평생 모아온 보험금부터 신행단체 모임을 회향하며 마련된 정재까지.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불사의 성공을 위한 정재(淨財)들이 전국에서 답지되고 있다.

서울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원로 명수 스님은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30년 전 산행 중에 우연히 열암곡 부처님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명수 스님은 50년동안 적립하다가 수령하게 된 보험금 3000만 원을 전액을 보시해 감동을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명수 스님 같은 어른이 계셔서 열암곡 마애불 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 같다"며 "빠르면 내년 후반에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여법하게 일으켜 세울 계획이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역사적인 날, 스님을 초청해서 기쁨과 감동을 함께 하고자 하니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미타사 비구니 원로 명수 스님이 2월 14일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1977년 창립된 부산 여성불자 신행단체인 '부산연꽃모임'은 50여년 활동을 회향하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과 튀르키예 지진 구호금으로 1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대원성 부산연꽃모임 회장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모임의 대부분 회원들이 고령이라서 이전처럼 활동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임을 회향하며 불사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부산에서 뜻 깊은 신행단체를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치하하며 "종단 불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데 정재를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장학승 장학증서 수여

총 21명 신규 선발

조계종 종단 장학승들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규 선발된 종단 장학승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증서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장학승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장학승 선발을 축하한다. 종단 장학승으로서 사명감을 잊지말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면서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고, 포교의 난맥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여러분의 역할에 한국불교 중흥의 성패가 달렸다. 종단 동량으로서 역할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지난 1월 31일 회의를 열어 '불기2567(2023)학년도 종단 장학승'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신규 종단 장학승으로는 국외 2명, 국내 9명, 사찰승가대학원 10명 등 총 21명이 선발됐다.

신성민 기자



'2代' 이은 연등 제작
승강장치 시공 전문기업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010-9446-1862
031)768-7270, 7271
찬덕불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공장 직영 생산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보장합니다



교계 대표 복지관, 디지털 복지문화 이끈다

서울노인, '내 손안의 복지관'
플랫폼 활용으로 스마트하게
종로노인, 역사 모은 아카이브
"회원들 간 소통 공간 되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불교계 대표 노인복지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 시도로 新노인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이하 서울노인센터)는 2월 10일 센터내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다양한 시니어 디지털 교육 사업을 공개하고 '스마트 복지관' 으로의 도약을 서원했다.

올해 서울노인센터는 '100만 선배 시민이 참여하고 배우고 나누는 광장' 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로운 만남과 활기찬 미래가 있는 곳으로 꾸려나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 기기와 어르신들의 접점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러닝 시스템 '도시락' , 어르신 스스로 건강 수치를 측정하고 복지관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나.비(나로부터 비상한다)' 등 플랫폼이 활용된다. 또 디지털 체험관과 메타버스 구현으로 스마트 복지관으로서의 역할 확장과 편리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장 희유 스님은 "센터는 언제나 가까이, 내 손안의 복지관, 내 손안에서도 척척을 기조로 플랫폼이 활용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스마트 복지관으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인별 고민해결을 위한 1:1 혹은 집단 상담 서비스 △인문학 아카데미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운영 △어르신 권익위원회 발족 △1인 독거어르신 돌봄 강화 △서울국제노인영화제(5월 11~15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올 한해를 가득 채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디지털 복지문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선다. 2월 1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종로노인복지관은 전국 사회복지기관 최초로 런칭한 아카이브를 공개했다. 아카이브는 종로노인복지관의 역사를 한곳에 모은 것으로 동영상과 홍보물, 간행물, 언론보도, 수상내역, 기관 방문 내역 등이 담겼다. 현재 2774건의 자료가 디지털로 변환,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다.

정관 스님은 "아카이브는 회원들이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고 회원들과도 더욱 친밀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회원들의 활동에 편리함을 더하고자 디지털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원패스 회원관리 시스템을 도입, 출입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한다. 고위험 어르신 사물인터넷(IOT) 안부 확인 시스템을 운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현대문화에 적응,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스마트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종로시니어디지털센터' 를 운영, 아날로그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 한 노인 일자리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차세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플러스 카페 바리스타 봉사단을 시범 운영,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이 없어 카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예비 시장형 일자리 참여자 인력풀을 확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유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 외에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불면증 완화 프로그램 꿀잠케어 △제4회 서울시니어연극제(11월 6~10일) △죽음준비 프로그램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구축 △환경 알리미 에코푸리봉사단 양성 △찾아가는 장금이 등 올 한해도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다.

조계종 대표단,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 영결식 참석

2월 13일, 정범 스님 등
성운대사 속환사바 기원


조계종 조문 대표단은 2월 13일 불광산사서 봉행된 성운대사 영결식에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이 2월 5일 원적에 든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 성운대사 영결식에 조문단을 파견,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3일 불광산사에서 봉행된 성운대사 영결식에 조계종 조문 대표단을 파견했다. 조계종 조문 대표단은 해외특별교구 부교구장 정범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사회국장 현우 스님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대만 불광산사를 찾아 주지 심보 스님, 부주지 혜전 스님 등을 예방하고 애도를 표했으며 총무원장스님의 조사를 전달했다.

불광산사 주지 심보 스님은 조계종 조문 대표단에게 "성운대사는 원적에 드셨지만 평소 원하셨던 대로 다시 인간세계에 오실 것을 믿는다"면서 "성운대사는 평생 불교의 신구의 삼업(三業)을 삼호(三好)로 바꾸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자는 삼호운동을 펼쳤으며, 보시의 정신은 네 가지 베풂(사람들에게 신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기쁨을 준다)이라는 4급(給)으로 말씀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수행은 출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재가자 모두에게 필요하며, 지혜와 선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설파하셨음을 되새겼다.

조계종 조문단 대표 정범 스님(해외특별교구 부교구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큰스님의 원적을 아쉬워하면서 조계종 대표 조문단을 보내셨다"고 밝히며 2004년 성운대사의 초청으로 종단 관계자들과 함께 불광산사를 방문해 큰스님을 접견한 기억을 회고했다.

정범 스님은 "당시 성운대사께서는 불광산사가 미국에 설립한 서래대학에 한국 스님을 모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여러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비구니회를 대표해 참석한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은 한국 비구니 6000명을 대표해 성운대사의 원적을 애도하고 속환사바의 기도를 올렸다. 조계종 조문단 대표 정범 스님은 성운대사 영정을 찾아 조문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조사를 대독했다. 종회의장 주경 스님 또한 조사를 보냈으며 이는 포교부장 선업 스님이 대독했다. 이밖에 성운대사의 영결식에는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송광사 지현 스님이 참석해 대사의 속환사바를 기원했다.

한편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불광산사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대만 총통 차잉원을 비롯 정관계, 대만 국내외 종교계 대표 및 불광산사 스님, 신도대중 약 5만 명이 참석, 차분하고 질서 있게 봉행됐다. 임은호 기자

문화재 연구자가 전한 국보·보물 이야기

국립문화재연구원 '내가 만난 국보 · 보물' 발간

문화유산 현장 조사 연구원
현장 생생한 경험담 풀어내



문화유산 덕후, 문화재 연구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미술 · 기록 문화유산을 직접 현장 조사하는 연구자들이 집필한 〈유물과 마주하다-내가 만난 국보 · 보물〉을 발간하고, 전자책을 무료로 공개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상태와 보관 환경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의 연구자들이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미술 · 기록 유산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정기조사에 나선 연구자들은 전국에 산재한 국보와 보물들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소장자를 직접 찾아가 문화유산의 보관 상황 등을 점검 · 기록하고 조습제나 방충제 등 보존 용품을 전달한다. 정기조사의 결과는 향후 국보 · 보물의 보수 계획 수립과 국고보조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책자는 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자들이 직접 국보와 보물을 정기 조사한 과정에서 선별한 13건의 주요 문화유산 조사 소회와 뒷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이밖에도 1원짜리 참기름 병이 국보가 된 사연,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건 피난길에서 어두운 밤을 이용해 커다란 영정함 두 개를 실은 수레를 끌며 끝까지 지켜낸 후손의 노력 등 연구자들의 재미있는 현장 이야기가 많이 담겼다.

유물의 세부 모습과 조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해당 유물에 관한 참고 자료도 수록해 관련 연구 성과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꾸몄다.

문화유산 정기조사 및 보존 ·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 소장가, 문중, 사찰 및 전국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배포된다. 전자책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portal.nrich.go.kr)에서 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장학금 재기부로 선순환 나선 동국대생

원법사, 건학위 지역 불자육성장학에 기금 전달

원법사 장학생 기부 약정
후배 장학 기금으로 활용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2월 14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원법사 2기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2021년 11월 기부로 첫 시작을 알렸던 원법사에서 두 번째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수여했다. 원법사는 동국대에 누적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이날 1300만원을 전달했다.

해운 스님은 동국대 재학시절 받은 장학금을 후학들에게 선순환하기 위해 졸업 후 원법사 장학회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약 3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모금하고 53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1기 원법사 장학생들의 꾸준한 발전과 활동을 토대로 계속적인 후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활동을 열심히 한 1기 장학생 4명과 신규 장학생 9명 등 총 13명이 선발돼, 1인 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13명의 장학생들은 매월 1만원씩 1년 간 원법사 장학회에 재기부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동국대는 "재기부된 장학금은 차기 원법사 장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된다"면서 "장학금 선순환과 자비와 보시행의 실천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신뇨엔, 열반절 맞아 열반회 법회 봉행

동경 응현원 법회 생중계에 동참
〈대반열반경〉 가르침, 정진 당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재단법인 신뇨엔 부산정사가 2월 15일 부산정사에서 열반회 법회를 봉행했다.

재단법인 신뇨엔 부산정사(상임이사 정경)가 2월 15일 부산정사에서 열반회 법회를 봉행했다. 열반회는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정진을 당부하며 법문한 후 입적에 든 '열반절'을 기리는 신뇨엔 법회이다.

신뇨엔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정진하는 종단으로 개조 이토신죠(1906~1989)가 설립했으며 신뇨는 진여(眞如)를 의미한다.

열반회 법회는 일본 동경 다치카와시 신뇨엔 종합도량 응현원에서 봉행하는 법회의 생중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법회는 원주 게이슈사마의 설법을 통해 〈열반경〉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열반회 법회는 부산정사 뿐 아니라 전 세계 신뇨엔 불자들이 동시 접속해 열기를 더했다.

먼저 법회는 터키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대반열반경〉 순타품에 대한 설법과 부처님의 열반을 그림으로 담은 '열반도(涅槃圖)'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열반도는 일본 진언종 사찰 제호사에서 수여 받은 것으로, 부처님의 열반 당시 모습이 담겨있다. 열반도에는 부처님의 제자와 중생을 비롯해 동물, 신들과 마왕까지 참석해 석가의 열반을 한탄하고 마지막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원주 게이슈사마는 열반도에서 순타존자를 찾아 설명하며 "순타는 부처님이 입멸할 당시 15명의 도반들과 함께 달려와 마지막 공양을 올렸다. 이때 부처님은 순타의 공양만을 받으셨다"며 "개조 교슈사마는 청년 재가자인 순타의 마지막 공양을 보며 재가자의 수행과 구제의 길을 찾아냈고 가르침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정법호지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순타이다. 포교와 실천수행, 환희, 봉사로 마음과 행동을 장엄하자"고 당부했다.

신뇨엔은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설립된 재가불교 종단이다. 개조 이토신죠는 진언종으로 출가해 진언 밀교 수행을 이어왔다. 이후 경전을 연구하던 중에 〈대반열반경〉에서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수행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경문을 발견해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재가자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중생구제를 발원하며 신뇨엔을 설립한 이토 신조는 신뇨엔에 봉안된 열반존상을 직접 근각하고 세계 각처에 있는 신뇨엔 도량에 동일한 열반존상을 봉안했다. 열반존상은 부처님 입멸 당시 모습이 아닌 청년 부처님의 얼굴을 담아 완성해 〈대반열반경〉에서 설하는 영원성을 상징으로 담았다. 매년 신뇨엔은 열반회에서 〈대반열반경〉을 설명하며 '누구나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는 '일체실유불성(一切悉有佛性)'과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부산시 난개발 반대 성명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존 요청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2월 10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낙동강 하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습지로 길이 보존해야 할 필요성 인정되어 1960년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며 "그동안 난개발로 숱한 훼손이 있었음에도 워낙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어 지금도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 한국 최고의 철새도래지이자 세계적 습지로 기능하는 곳이다. 그러나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많은 교량과 경관을 해치는 고층 빌딩들을 보며 난개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저대교 · 엄궁대교 · 장낙대교 건설계획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제2에코델타시티 건설과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시도는 중단되어야한다. 이는 부산시가 얘기하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와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과도 모순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부산시와 정부에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시도와 낙동강 하구의 대자연을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등의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호소했다. 또 "한국 대표 갯벌,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촉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자비원, 헌혈 캠페인 진행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이 2월 8일 자비원 시설 일대에서 헌혈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혈액 수급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민에게 헌혈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양로시설원장 선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홍성표 자비원 사무총장, 최경옥 국장 등 임직원이 동참했다.

홍성표 자비원 사무총장은 "이번 헌혈 캠페인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은 1991년 노천당 월하 대종사가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 최초로 설립한 노인복지전문기관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추모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2월 16일 맑고향기롭게 사무국에서 '법정 스님 13주기 추모회'를 봉행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추모의식을 매년 봉행하고 있다.

추모회에는 성주사 조실 흥교 대종사와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한 범어사 총무국장 범종스님, 교무국장 본원 스님 등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박수관 회장과 맑고향기롭게 운영위원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회는 예불과 헌화, 법정 스님 생전 가르침을 담은 추모영상,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흥교 대종사는 "법정 스님은 효봉 스님의 제자였고 정성을 다해 시봉을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법정 스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을 울렸고 부산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청한 인연도 있었다. 오늘 추모회를 맞아 가르침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불일암을 방문했을 때 청아하고 맑은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때 느낀 법정 스님의 청아한 기운이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모임의 중심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박수관 회장님께 감사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박수관 회장은 "혼탁하고 어두운 소식이 들려올 때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그립다"며 "이런 시대에 스님께서 한 말씀 화두처럼 던져주시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주셨을 텐데,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나신 것 같아 그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주시고 맑고 향기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법랍 55세, 세수 78세로 입적했다. 1976년 발간한 산문집 〈무소유〉 등 30여 권의 책을 펴낸 수필가로도 알려져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혜단이슬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가 2월 11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주제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선혜단이슬합창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널리 전하고 있다. 포교를 위해 부산과 경남 등 전국에서 일어난 어린이합창단의 시작점으로 문화포교에 가능성을 보여준 단체이다.

정기공연에서 선혜단이슬합창단은 불교를 주제로 한 찬불가 '나모아바로기떼서바라', '부처님이 좋아요', '부처님오신날' 등을 소개했으며, 자유곡 '달팽이의 하루', '네잎클로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등 다채로운 곡을 선보였다. 아울러 무진선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진선재 '해금중급반'과 '기타초급반'이 찬조 출연해 무대를 풍성하게 꾸몄다. 특별무대에는 부산로열유스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윌리암 텔 서곡(William Tell-Overture)과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 주제곡 등을 연주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부산로열유스오케스트라에는 선혜단이슬합창단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인연이 됐으며 특히 강소영 학생은 악장을 담당하고 있다.

행사에는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과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무진선원 주지 담화림 스님, 동련 이사 능후 스님, 선혜단이슬합창단 지도법사 도진 스님을 비롯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과 학부모가 참석해 격려했다.

회주 지현 스님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오늘 아름답고 순수한 천진불들의 화음을 불보살이 찬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며 "부처님 법음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들이 바라는 희망 가득한 세상이 불국토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선혜단이슬합창단은 2016년 7월 3일 창단했다. 이후 2017년 창단발표회를 시작으로 찬불동요의 중요성을 알렸다. (051)294-93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명불원, 팔관재계 수계법회 봉행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원장 원순)이 2월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팔관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팔관재계 수계법회는 전계화상 원순 스님, 교수아사리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 갈마아사리 해인사 前 율원장 혜능 스님이 담당했으며 개식, 거향찬, 청성과 청성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참가한 불자들은 참회진언을 외며 연비를 받았고 청정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이에 앞서 동명불원은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이 사찰에서 생활하고 강의 및 백팔참회, 기도 등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계에 담긴 의미를 전달했다.

원장 원순 스님은 "팔관재계는 부처님이 재가 불자를 위해 수행 생활을 알 수 있도록 베풀어 놓으신 계법"이라며 "계는 모든 선의 근본이며 악을 소멸하는 근원이다. 수행은 계로 시작한다"고 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천문학 강좌

사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편법 사주명리, 육임 등등은 불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따라서 불교 경전에 설파된 각종 천문관련 방편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평생운세, 매년운세, 단시판단법, 택일법, 기도성취법 등을 국내,외 최초로 스님, 법사님에게만 한정 '제6기 불교천문학 강좌'를 안내합니다.

불교천문학 특징

- 불교의 기본 핵심, 원리을 명확하게 알수 있음.
-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하게 됨.
- 만사, 인사의 관계성을 이해하게 됨.
- 방편법으로 모든 동양학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됨.

모집요강

- 개 강 : 3월 12일(일) 15시
- 교육 과정 : 주 1회 2시간씩 약 1년 과정
- 교육 장소 : 수원시 소재 수도사
- 교육 비용 : 약간 보시금
- 접수 문의 : 010-4317-9500(심원)

하늘 맘 알기 불교천문학 강원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림사
- 주 지 : 수민(임정선)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52번길 37
- 전 화 : 010-7133-841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알립니다.

2023년 2년 10일

한국불교원효종 법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성 옥천사 청소년 명상캠프 진행

'2023년 새해맞이 청소년 명상캠프' 초~대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참가 체험형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과 독수리 먹이주기 템플스테이 진행 학교 밖 아이 위한 대안학교 준비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옥천사와 고성읍 독수리 식당에서 템플스테이 '2023년 새해맞이 청소년 명상캠프'를 진행했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지역의 문화 · 생태와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옥천사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옥천사와 고성읍 독수리 식당에서 템플스테이 '2023년 새해맞이 청소년 명상캠프'를 진행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마가 스님을 비롯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과 포교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명상 예불, 타종체험, '천상천하유아독존' 등의 불교의식 체험을 비롯해 해탈명상, 소리명상, 숲속명상, 차 명상, 걷기 명상 등 마가 스님이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 예술 · 생태 활동가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2월 10일에 열린 '해탈명상'에 참가한 대중은 자신이 직접 그린 종이탈을 쓰고 5분 동안 각자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어렵게 털어놓은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경은 학생(삼현여고 1)은 "탈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편했다"며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오면 그땐 내 이야기를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방에게 절을 하는 천상천하유아독존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재원 학생(건국대)은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으로 절까지 받고 보니 부끄러웠다"며 "좀 더 주인공답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 나아가는 긍정명상 '에고 깨트리기'를 체험한 권자연 학생(가천대)은 '나는 무엇인가. 나에 대한 성찰'이라는 제목의 후기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나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주체적인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마가 스님은 "불완전한 아이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과 함께하면 사찰에 와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교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어 이번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며 "지금까지는 불교 외적인 공부를 해 왔다면 이제는 내면으로 채화시키는 명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마음과 미래불교를 위한 청소년 명상을 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청소년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다니다가 뒤처지고 포기하게 될 때, 스스로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월 11일에는 고성 독수리 생태관에서 독수리 먹이주기 체험을 진행했다. 체험 지도를 맡은 김덕성 독수리생태관 대표로부터 독수리의 생태와 환경보존의 중요성, 생명존중사상에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멸종위기종인 독수리는 몽골에서 고성까지 3000km~4000km를 날아 우리나라 고성까지 와서 겨우살이 후 다시 몽골로 돌아간다.

한편, 옥천사는 미래의 주역이 될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또 3월부터 상실감을 치유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선운사 20대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

문화도량 선운사 등 비전 제시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20대 주지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경우 스님이 선출됐다.

선운사는 2월 13일 성보박물관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경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경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원회 진산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경우 스님은 3연임을 하게 됐다. 3번째 임기의 시작은 4월 4일부터이며, 4월 8일에는 주지 임기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경우 스님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으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선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요즘 신도와 출가자 수가 줄어들면서 절 집안의 위기라고 본다" 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님들이 초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경우 스님은 향후 선운사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과제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확대 및 전통사찰 개 · 보수 등 말사 지원 정책 확대로 함께 성장하는 본 · 말사 실현 △본 · 말사 ·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구발전위원회 구성으로 교구발전방안 모색 △세계적인 명상체험관 조성과 각종 문화축제 및 복지 활동으로 '최고의 문화도량 선운사'와 '문화도시 고창'을 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반야정사, 나무방생법회 봉행

에메랄드그린 1200 그루 방생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한 방생법회가 열렸다. 서울 반야정사(주지 효진)는 2월 10일 장수 성관사(주지 화진)에서 부처님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과 탄소제로를 실천하고 지구를 살리는 나무방생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대중은 무설전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환경과 지구 생태계의 복원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무설전에서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나무방생 수종인 에메랄드 그린묘목을 안고 관음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하고 겨울을 지낼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이날 반야정사에서 방생한 나무는 에메랄드 그린 약 1200여 그루다. 겨울 동안은 비닐하우스에서 보관하다 봄이 되면 성관사에 조성된 나무방생부지에 심어질 예정이다.

반야정사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나무방생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생명평화포럼 1차 준비모임 개최

도법 스님 등 각계 인사 참석해 기후 등 위기 '생명평화'로 풀어



'전북생명평화포럼'이 2월 10일 전주시 파레스토랑에서 '또 다른 전라북도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1차 준비모임(대표 도법, 김택천, 박맹수)을 개최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지난 2월 6일 전라북도의 가치를 생명평화와 생태문명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출범했으며, 전북지역의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및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늘 삶이 인간다운가? 묻고, 출가 수행자다운 괜찮은 삶인가? 물으며 살고 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기도 하다가 찾은 개념이 생명평화이다"며 "요즘 사회적 관심사가 된 기후위기, 코로나19, 양극화, 지역소멸 등은 우리의 삶과 철학과 세계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포럼은 이런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고 성찰과 기대를 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정현 전주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의 '또 다른 전북은 어떻게 태동하는가?', 정웅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의 '생명평화 전라북도를 상상한다'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이재원(사단법인 이음 대표), 엄성복(전북완주 고산면 지역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전북생명평화포럼 준비모임'은 기후위기, 지역소멸, 청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라북도의 위기를 생명평화의 문제의식으로 풀어보기 위해 노력하고 정책 대안까지 이어져 전북생명평화특별자치도로 꽃피기를 기원하며 전북생명평화포럼 예비포럼의 형식을 통해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생명평화포럼 준비모임'은 지난해 수현사에서 진행된 전북사부대중원탁회의에서 전북생명평화포럼을 제안한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과 오랫동안 전북지역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전북생명의 숲' 김택천 대표, 前 원광대 총장 박맹수 교무를 주축으로 지역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신년하례식 · 현판식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가 2월 15일 양산 불광사에서 계묘년 시무식을 겸한 신년하례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양산불광사 청봉스님,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 대한불교수미산문 조동정 종정 정림 스님,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종정 정일 스님,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종정 도우 스님, 세계불교육조계종 종정 동봉스님, 국제불교금륜종 종정 지환 스님,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세진 스님, 대한불교법황종 종정 혜능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종정스님들과 일붕신문 서병열 회장, 배영희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광사까지 먼 걸음하신 종정스님들과 오늘의 법석을 준비해주신 불광사 청봉 종정스님께 감사드린다"며 "계묘년에는 오늘과 같이 분발하시고 모두가 복된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한 토의에서 오는 4월~6월경 종정협의회 창립 28주년 기념 대법회 및 제14대 회장 이취임식을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개최하고 장병들을 위문하고 수계법회를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 4월 15일에는 종정협의회와 대한불교성덕종 주관으로 망향의 동산 위령대재를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종정협의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봉행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2179위의 추모제를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대종사와 종사, 대덕스님들에 대한 품서의 건은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회 후에는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현판 개막식도 진행됐다.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은 "계묘년 새해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생활이 활발해지니 올 한 해 협의회 중심으로 각자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은사 월호 스님 초청 백고좌법회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2월 12일 대웅전에서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백고좌법회를 봉행했다.

행불선원 월호 스님을 초청해 진행한 제2회 보은사 고월 백고좌 법회에는 신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보은사 고월 백고좌법회는 지난 1월 8일 마가 스님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3월 혜총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4월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 5월 정목 스님(BTN-나무그늘 아래서), 6월 11일 현고 스님(보은사 42주년 기념법회), 7월 광우 스님(BTN-소나무), 8월 대경 스님(송광사율원장), 9월 일수 스님(백양사선원장)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운사, 각성 스님 대승기신론 특강



고운사(주지 등운)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화엄템플관에서 경전연수교육의 일환으로 각성 스님의 〈대승기신론〉 특강을 진행했다.

고운사가 2009년부터 진행해온 경전연수교육은 '승려연수 교육에 관한 령'에 의거 조계종교육원으로부터 승려연교육과정으로 인정받아 수료하며 3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입재식에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총무국장 도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등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각성 큰스님의 열정에 감사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특강에 참석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울산불교신도회 27대 이영수회장 취임

2월 10일 이 · 취임식

위상 강화 · 유산발굴 홍보 진력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26대 이병호 회장과 27대 이영수 회장의 이 · 취임식이 2월 10일 울산 문수컨벤션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 · 취임식은 개회, 삼귀의례,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감사패전달, 재직기념패전달, 이임사, 추대패 및 회기전달, 취임사, 축사, 격려사, 축가, 축하 케이크 커팅, 사홍서원, 폐회, 단체기념촬영, 저녁만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호 26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임기 중 닥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운 과정 속에 사회적 문화적으로나 모든 관습과 신앙생활이 혼돈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그동안 울산 불교 발전을 위하여 아끼고 사랑해주신 많은 스님과 신도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영수 27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도회장으로 소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사부대중과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혁신으로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울산지역 내 불교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불교신도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 탑사, 수계법회 봉행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서 수계법회 및 위문공연 개최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종교 활동이 중지됐던 군법당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9센터장 최주연)은 2월 12일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를 방문해 수계법회 및 위문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성 스님,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 호국 충경사 각담 스님, 이재현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장, 최주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장, 오혁재 35사단장, 35사단 장병과 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 진성 스님은 장병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수계제자를 대표한 정준식, 권용삼, 고혁서 병사와 김태우, 이재건, 신유준, 홍성혁 훈련병에게 수계첩을 전달했다.

이어 특설무대에서는 장병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펼쳐졌다. (사)전북문화관광연구소 남상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위문공연에서는 신세대 트로트 가수 해수, 밸리댄스 팀 '나니아', 댄스동아리 팀 '러쉬', '나인틴'이 출연해 장병들과 흥겨운 시간을 즐겼다.

또 다양한 장기를 가진 장병들이 무대에 올라 저마다의 장기를 자랑했다. 이날 마이산탑사 붓다 봉사단과 진안군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은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을 위해 홍삼찐빵, 피자, 그림커피, 떡볶이, 어묵, 음료수를 제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2022년 12월 자산 800억 달성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원각)은 2월 11일 오전 11시 대구 향교 대강당에서 조합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도 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상임이사장 보수 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의 성원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2022년도 자산 800억 원을 달성했으며, 배당률 3.1%를 기록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대만 자재공덕회, 지진 생존자 구호 총력

자재공덕회 이스탄불 지부에 재난구조조정센터 긴급 설립
난민 구호 필요 물자들 전달
의료 구호단 파견도 이어져

김민재 객원기자


자원 봉사자들이 지진 피해로 추위에 노출된 튀르키예 난민에게 보낼 업사이클링 담요를 포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자재공덕회

대만에 본원을 둔 세계적인 자선단체이자 인도주의 단체인 '자재공덕회'가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0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자재공덕회의 튀르키예 지진 생존자 구호활동 소식을 전했다.

2월 6일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남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자재공덕회는 이스탄불 지부에 재난구조조정센터를 긴급설립, 본부에 기부를 요청하고 긴급히 난민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재공덕회는 공식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로 인한 사상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에게 모금활동과 기도를 독려했다.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2월 7일 23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재공덕회의 정기 기도회에 참여해 "생존자 및 구조자의 무사안녕을 빌며 난민 구호성금을 모금했다"고 발표했다.

자재공덕회는 난민 성금 및 구호품 기부를 받기 위해 타이베이의 튀르키예 무역 사무소와 협력을 시작했다. 현지에서 지진 생존자들에게 나눠줄 음식과 생필품 등을 구입해 전달했으며,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존자들의 보온 담요가 부족해 경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8,148개의 업사이클링 담요를 기증해 무역사무소 대표에게 공식 전달했다. 대만 자재공덕회 본원의 의료 구호단도 구호품을 전달하고, 의료봉사를 위해 튀르키예로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자재공덕회 관계자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분들이 하루 속히 안정되길 바라며 신속한 구조 작업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기도한다. 전 세계 기부자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오는 28일까지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에 이르는 금액을 맞춰 신속히 피해 복구지원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러분의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2월 10일 현재 튀르키예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 3천여 명을 넘어섰다. 구조대원들은 7일 연속 생존자 수색작업을 계속했지만, 얼어붙은 기온 속에서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희미해지고 있다.

美, 미네소타 사찰 전통무용 강좌 신설

불교전통의 의식무서 기원
입소문 퍼지며 현지 관심도


와타낙 무용단이 캄보디아 전통 무용 강좌 전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AP통신

지난 2월 11일 미국의 'AP통신'은 미네소타주에 소재한 캄보디아 불교사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전통무용 강좌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의 전통무용은 불교의 의식무에서 기원된 것으로 전해 캄보디아 불교문화를 전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미네소타주의 캄보디아 사원 '왓 무니소타람'에서 불교와 캄보디아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무용 강좌가 신설됐다. 해당 강좌는 종교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또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도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모집을 마쳤다.

왓 무니소타람 사원은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발생한 크메르 루주의 대량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캄보디아 난민들이 모여 설립한 불교사원이다. 이 사원은 테라와다 교단에 속해 있으며, 난민들과 현지 불자들에게 영적인 구심점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다.

캄보디아 전통무용 강좌를 맡은 와타낙 무용단 단장 사브리나 소크는 "캄보디아 난민들은 망명생활 속에서도 캄보디아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했다. 불교와 캄보디아 전통이 결합된 전통무용의 역사는 1,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왕실과 불교사원에서 공연되던 '신성한 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무용강사 개럿 소어는 "캄보디아의 전통무용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여겨졌다. 공연하는 그 순간 공연자의 육신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나 천신의 화신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속한 와타낙 무용단의 주된 목표는 '전통 무용의 보전'이다.

왓 무니소타람의 신도인 소피아 소어는 "아이들이 전통무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종교를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증거"라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무용으로 표현되는 것과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정부, 스님들에 응급처지 훈련교육

5개월 간 1만 여 스님들 교육
응급의료 사각지대 감소 기대


2018년, 사고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중인 스님들. 사진출처=넥스트 샤크

태국 공중보건부와 산하 직속 의료연구원은 올해 태국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상가라자 암바로 스님의 96세 생일을 기념하여 전국의 스님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7일, 태국의 '방콕 포스트'는 이번 캠페인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감소하기 위한 불교계와의 공동활동이라고 보도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수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26일, 태국 불교의 가장 큰 어른인 상가라자에 계신 암바로 스님의 96세 생신을 맞이하여 국가적인 기념행사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각 사찰의 스님들에게 응급처치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누띤 차른위라꿀 태국 보건부 장관은 "최근 조사결과 태국스님들의 28.5%가 암, 호흡기 감염, 당뇨병, 고혈압 및 신장 문제와 같은 비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사찰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병인 등이 없어 병원 치료 후에도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중한 사찰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됐다"며 훈련을 제공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아누띤 장관은 "현재 보건부는 '하나의 사찰에 한 명의 간호승'이라는 구호아래 응급처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태국 전체 승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캠페인은 지난 6일 방콕에 소재한 왓 쁘라 스리 마하탓 사원에서 진행됐다. 태국 전국에서 찾아온 수백명의 스님들에게 보건부 산하 의료원 의사들의 응급처치 시범과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내용에는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 사용법도 포함됐으며 상가라자 암바로 스님과 아누띤 장관이 참관했다.

현재 태국 보건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의 훈련과정으로 전국 9,360명의 스님들에게 응급처치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태국 보건부 의료원의 위차이 띠엔타보른 원장은 "전국 각 사찰마다 적어도 한 명은 간호승으로 활동하는 스님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몸이 불편한 스님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처님께서 병든 출가자는 결코 혼자 두어선 안된다. 의료기술과 같은 기술은 출가와 재가 모두에 선한 행위라고 가르치셨다"며 교육의 내용이 단순한 의료 캠페인이 아닌 사찰에 상주하는 출가자와 방문하는 재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태국에서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응급의료 훈련을 받았던 스님들이 심폐소생술로 사람들을 구조한 사례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재주목 받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사찰만 노린 절도범죄 줄이어

요사채까지 침입…동일범 소행추정



열쇠가 걸린 부분만 깨고 요사채와 법당에 침입한 범죄흔적. 사진출처=제로테레 뉴스

일본에서 사찰만을 노린 연쇄 절도범죄가 일어나 교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2월 10일 일본의 '제로테레뉴스'는 보안이 취약한 사찰만을 노린 범죄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야마나시 현에서 최근 5개소의 사찰이 연쇄적으로 금품 등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범인은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사람이 드문 새벽녘을 노려 유리문의 열쇠가 잠긴 부분만 깨고서 사찰의 요사채나 본당을 침입해 금전과 귀중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사찰들은 모두 방범 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음도 드러났다. 언론들은 "범인은 교묘하게 자물쇠가 걸린 부분만을 유리칼 등을 사용해 구멍을 내고 손을 넣어 안에서 자물쇠를 여는 것으로 경보울림을 해제했다"며 방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거나, 사찰의 구조를 파악한 면식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내용 중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도난당한 귀중품과 금전도 고액은 아닌 것으로 전했다. 법당을 침입당한 사찰의 경우 문화재나 불구 등에 대한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 범인은 금전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측은 "하룻밤 새에 5곳의 사찰을 노렸다는 점에서 사찰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계획범죄"라며 지역 사찰들의 주의를 요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지역소도시를 중심으로 상주하는 스님이나 관리인이 없는 무인 사찰이 급증가함에 따라 사찰을 노린 절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찰의 경우 대부분 방범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오작동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 사찰을 노린 범죄는 성보문화재를 노린 절도사건이 주를 이루며, 심지어 지역문화재로 지정돼 정기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해 미술품 경매에서 환수하는 등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불교영화 중흥 위한 새로운 이정표 될 것”

구담스님, 영화 ‘불교 진혼곡’ 제작발표
첫 독립 장편영화 2월 27일 크랭크인

“전생 통한 현실의 ‘나’ 보고 깨달음 얻어”
‘다시 피고지는 그 뜻은’ 배우 등 전면 수정
9월 세계일화불교영화제서 최초 상영 예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영화감독 구담 스님이 독립장편영화 ‘불교 진혼곡(러닝타임 70분)’ 첫 촬영에 들어간다. 구담 스님은 2월 14일 파인트리 시어터에서 영화 ‘불교 진혼곡’ 쇼케이스(연기 리허설)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27일 크랭크인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후원하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제작 지원하는 영화 ‘불교 진혼곡’은 과거 소개된 바 있는 구담 스님의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을 제목과 배우, 내용 등을 수정 · 교체해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우선 영화의 규모를 줄이고 마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추가했다. 배역을 일반 배우에서 전문 무용수로 교체했으며 스토리도 현생 부분보다 과거 전생 부분의 이야기 중심으로 바꾸었다.

연출을 맡은 구담 스님은 “우선 영화의 규모를 조금 줄였고, 무용이 중심인 영화인데 일반 배우들이 단시간에 익힌 무용으로는 영화의 내용을 충분히 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무용극으로서 최대치의 효과를 내기 위해 마임이라는 장르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 ‘불교 진혼곡’의 한 장면.

한국무용의 단아함과 아름다움, 마임의 섬세함과 신비함 그리고 불교의 성찰이 어우러진 ‘불교 진혼곡’은 오는 2023년 9월 세계일화불교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는 대부분의 촬영이 극장(무대)에서 진행되며 영화적 서사 위에 한국무용과 마임이 더해진 국내 최초의 독립장편 무용극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주인공인 수인의 49재를 지내는 제의적 공간에서 전생과 환생을 거듭하는 성찰의 이야기다. 수인을 짝사랑하던 광대 기도가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하여 공주인 수인이 있는 침실로 들어와 궁에 소란이 일어난다. 이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궁에서 쫓겨난 수인은 시종인 무사와 함께 구렁이의 해원을 위해 전국의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린다. 마지막 굴 법당에 이르러 구렁이가 공주의 몸에서 풀려나자 무사와 구렁이의 혈투가 벌어지고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다시 맹인 무녀로 환생한 수인과 어린 동생 선아는 독룡 때문에 황폐해진 마을 사람들의 청으로 독룡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독룡의 천도를 위한 의식이 펼쳐진다.

영화는 생의 끝없는 순간 속에서 어떻게 본질적인 주체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다른 시간대의 인연이 옴니버스처럼 이어지며 시공간을 뒤틀지만 오히려 주인공의 사랑과 희생은 뒤틀어진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근원적인 가치를 무용과 마임으로 구현한 새로운 기법과 형식을 선보인다.

구담 스님은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수많은 전생을 통해 현실의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을 자각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영화의 메시지를 설명했다.

영화 ‘불교 진혼곡’은 불교영화의 미래적 대안인 불교예술영화를 위한 것이면서, 현재 불교영화 중흥을 위한 불교 기획영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구담 스님은 “대중적인 상업영화 제작을 위한 대규모 제작비 투자가 어려운 현실에서 작품성 있는 저예산 독립장편영화의 활발한 제작이 불교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 ‘불교 진혼곡’은 불교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담 스님의 첫 작품인 ‘두 번째 화살(2018)’은 〈아함경〉에 나오는 두 번째 화살에 비유한 삶과 죽음의 성찰을 주제로 했으며, 두 번째 작품 ‘불타는 다이어트(2019)’는 명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트라우마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제사(2020)’는 고전 〈삼국유사〉의 내용을 모티브로 한 억눌린 자아의식에 대한 성찰을 그렸으며, ‘오월의 만다라(2021)’에서는 광주 5.18 민주항쟁과 불교를 배경으로 출가수행자의 사회적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홀로 빛나는 어둠(2022)’은 현대 영화 시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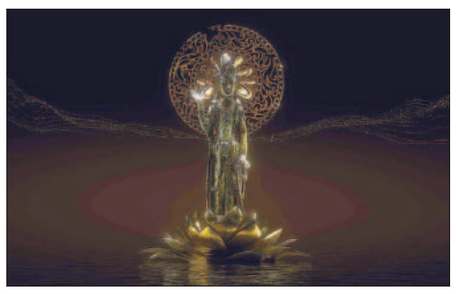
주연 수인 역의 박기량은 현재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생이다. 기도 역의 이정훈은 마임니스트로 연극, 방송, 영화 등에 다수 출연했다.

촬영은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회 걸쳐 진행된다. 촬영의 대부분은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연출과 제작을 맡은 구담 스님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 사이트(https://link.tumblbug.com/TmYmDhA99wb)를 통해 제작비 모연을 진행 중이다. 3월 9일까지 텀블벅 펀딩 사이트를 통한 모연을 진행한다. 문의 (010)-4656-1855.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를 실감하다’ 일반공개

백제유산 소재 제작 신기술융합콘텐츠
길이 12m · 높이 2.4m 초고화질 LED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활용 영상 상영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형원)은 2월 10일 백제의 대표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백제를 실감하다’를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의 테마는 ‘디지털 쉼터’이다. 이 쉼터는 한국의 전통적인 툇마루와 평상을 구현한 공간으로 길이 12m, 높이 2.4m의 대형 초고화질 LED화면의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다. 툇마루에 올라 영상에서 안내하는 명상 자세를 따라하면 관람객의 동작을 인식하여 반응하는 인터렉티브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에는 부여 규암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백제금동대향로, 왕흥사지 사리기, 부여 외리 유적 문양전을 활용한 감각적인 영상이 각각 상영되는데, 모두 널리 날려진 백제의 빼어난 문화유산이다.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 작은 보주를 잡고 있는 독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불상의 수준 높은 공예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상을 소재로 한 ‘깨달음의 손짓’에서는 관람객이 화면의 자세를 따라 하면서 직접 영상 속의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볼 수 있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리기로, 단아한 형태와 보주형 꼭지, 주위를 장식한 연꽃 문양이 주목된다. 또한 가장 바깥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銘文)은 왕흥사의 창건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귀한 재질인 금, 은, 동을 순서대로 사용하여 백제 사리장엄의 고귀한 면모를 보여준다. 왕흥사지 사리기의 ‘인내의 열매’에서는 관람객이 명상 자세를 하면서 영험한 기운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관람객이 쉽고 편하게 전시품을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신기술융합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41)830-8413.

박재완 기자

정율 스님 4대종교평화음악회 개최

‘수도자들의 영혼의 울림(버스킹)’
화엄사 3월 11일, 4대 종교 함께해
성당 · 교회 · 교당서 공연 이어가



40여 년 동안 무대를 선방삼아 음성포교에 헌신해온 정율 스님이 범종교적 음악회를 연다.

3월 11일 오후 1시 구례 화엄사에서 열리는 ‘수도자들의 영혼의 울림(4대 종교평화음악회) 버스킹’이다.

정율 스님, 무상 스님, 구자억 목사, 김성경 목사, 한청복 교무, 김성곤 교무, 정범수 신부, 부다스 합창단(100~120명), 부다스 앙상블(4~6명)이 출연한다. 종교 간의 화합과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뜻을 담아 대중에게 커다란 위안과 즐거움을 주고자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사찰을 시작으로 성당과 교회, 교당을 차례로 돌며 버스킹(거리공연) 형식으로 진행한다.

부다스 합창단의 동요와 찬불가를 관객들과 함께하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앙상블의 간단한 연주 후 찬불가 ‘차 한 잔 마셔요’를 비롯해 ‘나뭇잎배’, ‘오빠생각’, ‘작은별’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부르며 종교를 초월하는 버스킹을 펼칠 예정이다.

정율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원광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음악교육학 석사를 마쳤다. 샌프란시스코와 LA, 오렌지 카운티에 불교 합창단을 만들었고, 샌프란시스코 한국 최초의 성당에서 사랑, 자비, 희망의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5~2/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대승기신론해동소혈맥기(1)	원효/공파스님 역해	운주사
3	부적의비밀:기원과상징의문화	자현/김재일 그림	모과나무
4	청정도론(1)	붓다고사/대림	초기불전연구원
5	예수님은법받은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맛지마니까야(2)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자타카전서:부처님본생이야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8	맛지마니까야(3)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디가니까야(1)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책세상

〈금강경〉 가르침, 현대적 언어로 다시 태어나다



금강경삼가해 강설을 논강하다
무각 강설
한국선불교연구회 논강
불광 펴냄/2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금강경〉은 대승불교와 한국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디선가는 들어 봤을 공(空), 보살(菩薩),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같은 개념들이 바로 〈금강경〉에서 다루어진다.

"응당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住 而生其心)"와 같은 유명 구절도 이 경전에 나온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금강경〉이 펼쳐 보이는 공(空)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분별과 언어로는 파악하기도 그려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량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 하되 실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와 같이 일견 모순돼 보이는 가르침에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도 〈금강경〉이 갖는 이러한 성격서 비롯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선지식들이 〈금강경〉에 대한 해석을 남겨왔다.

〈금강경〉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서로는 〈금강경오가해〉가 단연 손꼽힌다. 〈금강경오가해〉는 〈금강경〉에 대한 부대사(傅大士)의 찬(贊), 육조(六祖)의 구결(口訣), 규봉(圭峯)의 찬요(纂要), 야부(冶父)의 송(頌), 종경(宗鏡)의 제강(提綱)을 모은 것이다. 〈금강경삼가해〉는 이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육조와 야부와 종경의 글을 뽑고, 거기에 조선 초기 고승인 함허의 해설을 더해 엮은 책이다.

수행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도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며, 바른 안목이 서게 되면 반드시 체험해 견성할 수 있다. 무각 스님을 비롯 원철 스님, 성진 스님 등 불교계의 중진스님들이 참여하는 한국선불교연구회는 〈금강경〉을 함께 참구하며, 그 바른 면목을 찾아내고자 했다. 먼저 〈금강경삼가해〉에 대한 무각 스님의 강설이 일년 넘게 진행되었고, 이 강설 내용은 여러 차례

> **〈금강경삼가해〉는 〈오가해〉 가운데 육조와 야부와 종경의 글을 뽑고, 조선 초기 고승 함허의 해설을 더해 엮은 책**

에 걸친 한국선불교연구회 워크숍에서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졌다. 이 과정을 통해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구절, 〈금강경〉에 대한 선지식들의 해석 한 마디 한 마디에 담긴 깊은 의미가 선불교 관점에서 현대적인 언어와 의미로 풀어내어졌다.

이 책은 〈금강경삼가해〉와 함께한 이 치열한 여정의 결과물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너무도 심오하기에 선뜻 이해되기 어려운 〈금강경〉 가르침이, 수행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할 '바른 면목'이 비로소 이 책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와 닿는 생생한 가르침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책은 〈금강경〉이 품은 빛나는 금강의 세계, 주관과 객관에 대한 분별적 집착에서 벗어난 대자유의 세계로 가는 길을 여실하게 펼쳐 보인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성인의 법문은 일체중생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며 깨달음의 세계를 곧장 열어 보여 주시는 법의 문이다. 논리나 이론이나 체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체험해 확인하고 증득하게 하는 데 그 뜻이 있다"며 "그러나 논리와 이론과 체계는 진리를 깨달아 체험하기 위한 방편이며 수단이므로 또한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성인의 법문을 믿어 받아들이고 참구하게 되면 정견이 서고 믿음이 성취되어 반드시 견성체험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저자 무각 스님은?

고우 무비 지안 통광 설우 혜거 스님 등이 참여한 '경전연구회'를 10년 넘게 이끌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공생선원 선원장으로 〈임제록〉 〈돈오입도요문론〉 〈선문촬요〉 〈선요〉 〈선가귀감〉 등의 선어록과 〈금강경오가해〉 〈화엄경〉 〈능엄경〉 등을 강의한다.

저서로는 〈그대 삶이 경전이다〉와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가 있다.

▲한국선불교연구회는?

경전 연구와 수행풍토 진작에 뜻을 두고 결성된 공부 모임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불교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원철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을 역임한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 관음정사 주지 정담 스님, 관음사 주지 청오 스님, 봉은사 포교국장 석두 스님, 능휴 스님, 청여 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염불자들 삶의 애환과 미래 희망 담긴 감동적 지침서



극락으로 가는 염불
현견보영 스님 지음
불교시대사 펴냄
1만 7500원

불교인이라면 염불은 기본으로 하는 수행이다. 염불은 사찰에 가면 아침저녁으로 목탁소리와 염불소리를 듣게 된다. 종송을 시작으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대중들이 모여 합창하듯이 염불 한다. 이런 염불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을 찾게 해 준다.

이 책은 일본의 신란 스님이 설하신 내용을 제자 유이엔 스님이 집필한 글 〈탄이초〉를 번역하고 거기에 해설을 붙인 것이다. 한국불교는 선 수행으로 단박에 깨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본 불교는 염불수행 하여 다음 생에 극락정토에 태어나길 원하는 발원으로 염불을 한다. 〈탄이초〉에는 염불자들에게 그러한 그네들의 삶에 대한 희망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그대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빛이 되어 있다.

실천적 염불을 행한 많은 선인(先人)들의 발자취가 그대로 현재의 염불자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신앙심을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이 〈탄이초〉는 결론적으로 염불자들의 삶의 애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감동적 지침서로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만큼 눈여겨 볼 대목이 많다는 의미다.

염불하는 염불자들은 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불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며, 극락에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찾는다.

염불은 어떤 대상 즉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을 집중해 부름으로 정신을 통일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그 세계에 안착할

> **이 책은 일본 신란 스님이 설한 내용을 제자 유이엔 스님이 집필한 글 〈탄이초〉를 번역하고 거기에 해설을 붙인 것**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겨 믿음이 돈독해지고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는 믿음으로 염불 한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 생각 차이로 성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성인 말씀의 힘을 빌려 행복을 찾고자 함이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는 있다. 팍팍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에게 의지하고픈 마음이 일 때가 있다. 그럴 때 종교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은 이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 모두 염불의 힘을 빌려 극락정토에 태어나길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해 보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탄이초〉의 구성은 소가료진(曾我量深) 선생에 의하면 첫 번 제 1조서 제 10조까지는 신란의 설교에 대한 염불자들의 진의 위반에 대한 것이고, 제 11조부터 제 18조까지가 이의(異議)의 조로 보았다.

이어 후서에서는 신심 논쟁으로 규정하였다. 이 모든 논쟁이 있는 것은 본원에 대한 진실한 신심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두 번째는 신란의 술회를 서술했다고 보고, 세 번째는 본원의 가르침에서는 선과 악이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열반하신 신란 대사가 말씀 하신 지극히 적은 분량의 말씀만을 생각해내어, 여기에 적어 놓고 염불자가 진실의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고 변지 방편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만은 있어서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보영 스님은?

1982년 득도했다. 大谷(오오타니)전수학원(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立命館大學(리츠메이칸)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 석사, 서울사이버대학원 사회복지 석사, 위덕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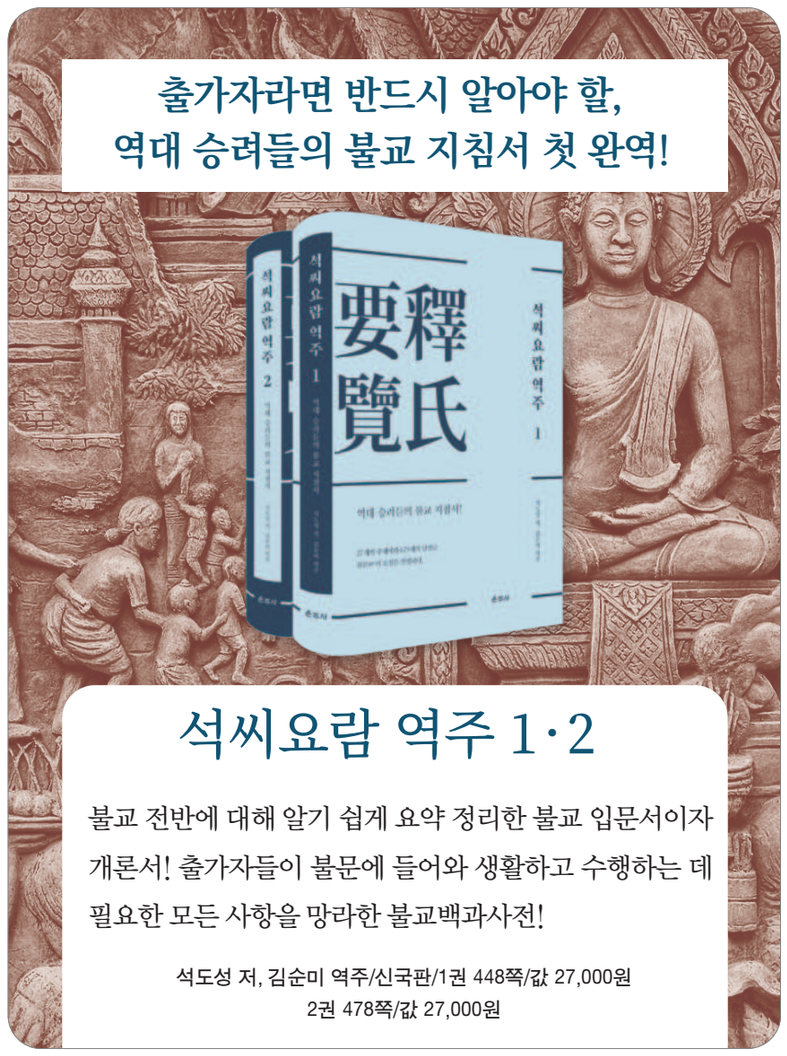
저서로는 〈봄날의 축제〉 〈내 생을 찾아서〉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탄이초의 악인정기설 연구〉 〈탄이초에 나타난 악인정기설의 선악관 연구〉 등이 있다. 현재는 염불공덕회 대표를 맡고 있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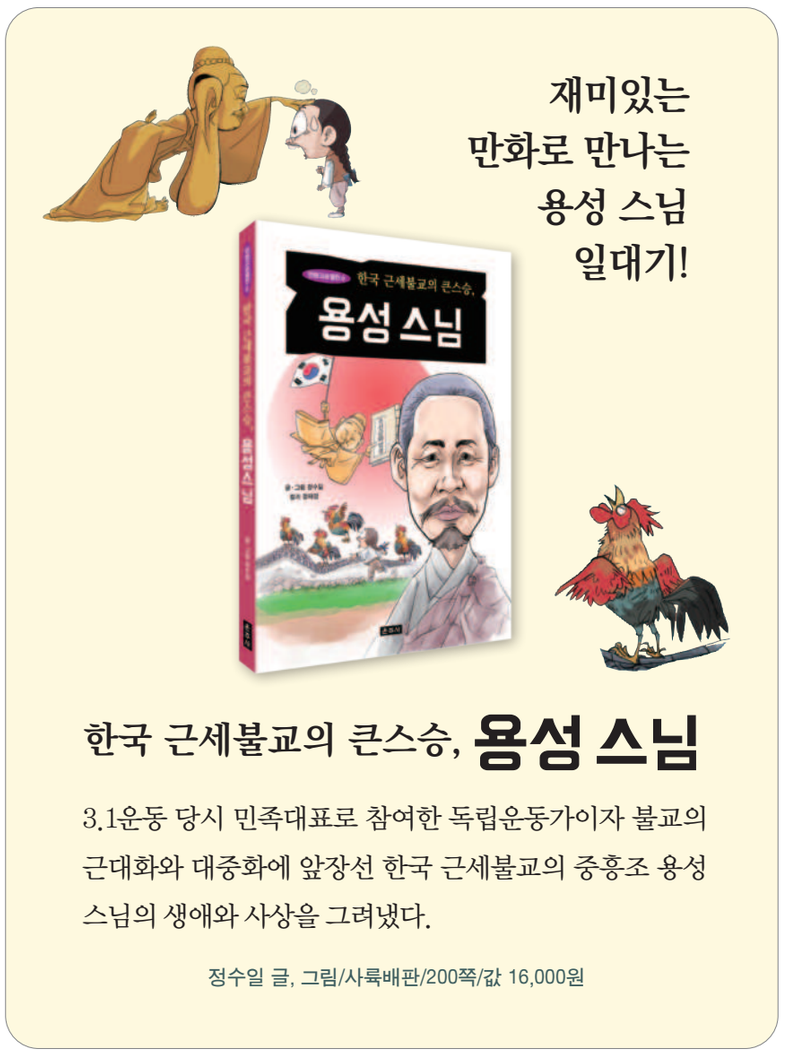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무문관〉, 초심자가 읽어야 할 선 수행 길잡이



선시로 보는 무문관
석지현 역주/해설
민족사 펴냄
2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禪)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은 공안의 탐구(참구)이다. 공안이란 선 수행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일종의 암호 같은 말인데 이 공안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 해독법을 익혀야 한다. 그 공안 해독 방법을 간결히 서술해 놓은 책이 바로 〈무문관(無門關)〉이다. 그래서 이 책은 "선 수행 길잡이"로서 선 수행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무문관〉은 〈벽암록〉과 〈종용록〉 뒤에 나온 책이지만 이 〈무문관〉을 공부하지 않고는 〈벽암록〉과 〈종용록〉의 공부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선 수행은 이론이 아니라 몸소 실천(實參實究)하는 것이다. 이 실천을 전제로 이론은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 예비지식도 없이 무작정 산을 올라갈 수는 없다. 낯선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 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한다. 선 수행의 사전 정보는 〈무문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 등산인이 되기 위해서 공안 탐구의 백미 격인 〈벽암록〉과 〈종용록〉을 읽어야 한다. 여기에 〈임제록〉까지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게 되면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남은 문제는 꾸준히 곧은 마음으로 가는 것(精進)이다. 저 개울이 끊임없이 흐르듯 그렇게 가는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느리지도 않게 자신의 근기에 맞게 가는 것이다. 수행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거나 막히게 되면 바로 이 책을 보기 바란다. 또한 책 출시와 함께 석지현 스님의 〈무문관〉 강의를 3월 14일부터 줌(zoom)과 종로 르미에르빌딩 A동 1102호에서 진행하니 이번을 기회로 선 수행에 도전하기 바란다.

무문관 성립 전후 배경

〈무문관〉은 1228년 남송 소정개원 7월 10일에 완성됐으며, 1229년 1월 5일 이종(理宗) 황제 탄신일에 출간됐다. 1245년 맹공(孟珙)의 발문을 붙여 재간됐으며, 그다음 해에 안만의 발문을 덧붙여 삼간(三刊) 되었다. 〈무문관〉이 출간 됐을 때 〈벽암록〉 판본은 대혜종고(1089~1163)에 의해서 소각되고 더 이상 유통되지 않았다. 〈무문관〉 출간은 〈벽암록〉이 나온 지 101년 후요, 〈종용록〉이 나온 지 4년 후인데, 〈벽암록〉 복간은 〈무문관〉 출간으로부터 70년 후이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벽암록〉은 이때 복간된 장본(張本)이다. 그래서 〈무문관〉은 그 당시(남송 말기) 선승들이나 사대부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스님이 무문관에서 열쇠를 잠그고 있다.

묵조선의 거장 천동정각(1091~1157)과 간화선의 제창자인 대혜종고가 활약한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만송행수(1166~1246)가 출현해 〈종용록〉을 완성했다.

그 당시 사상계에서도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신유학의 양대학파인 이학(理學)을 완성한 주자(1130~1200)와 심학(心學)을 세운 육상산(1139~1193)의 생존기도 바로 이때였다. 주자와 육상산은 그들의 사상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선불교의 현실도피적인 면과 비실용적인 면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서 무문은 작가 종사로서 활동하며 수행자들을 지도했다. 일본학자 가토 토츠도는 "〈무문관〉에서 무문의 문장이 건조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선(불교) 비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 상황은 극도의 혼란기였다. 남송이 망하고 원대가 되자 선은 뒤로 밀려나고 원나라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티베트 불교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서 〈무문관〉은 그 판본마저 유실돼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무문의 제자인 일본 승려 심지각심(心地覺心)에 의해서 〈무문관〉은 일본으로 전해진 후 오산판(五山版, 1405)을 시작으로 일본서 널리 유통되었다.

〈무문관〉이 일본서 이렇게 유통된 데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일본의 입송구법승들에 의해서 중국 선종의 모든 종파와 선 문화가 일본으로 유입, 오산문학이 탄생하면서 〈무문관〉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둘째, 남송 말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상당수의 중국 선승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선종을 부흥시켰는데, 이 흐름에 편승해 〈무문관〉에 대한 탐구도 자연히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일본의 선종 24파를 세운 선승 24명 가운데 10명은 입송 구법 했던 일본 선승들이며, 나머지 14명은 남송서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 선승들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문관〉이 별로 유통되지 않았다. 근래에 와서 일본서 유학하고 돌아온 출재가 선수행자들에 의해서 몇 개의 〈무문관〉이 번역 출간되었다.



강원도 인제 백담사 무문관 전경.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DB

〈무문관〉, 문장 단도직입적이며 간결해 공안, 수행 깊고 옅음 측정하는 계기판 3월 14일부터 지현 스님 〈무문관〉 강의

무문관의 사상적 배경은?

무문은 조주(趙州), 운문(雲門), 오조법연(五祖法演), 대혜종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조주의 무(無)자 공안 참구로 깨달음을 체험한 그는 무자 공안을 선종의 제 1관문(간화선의 핵심 공안)으로 채택했으며, 〈무문관〉 명칭도 이 무자 공안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무문관〉 48칙 가운데 무자 공안을 제외한 나머지 47칙을 이 무자 공안의 각기 다른 전개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무문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공안은 조주의 공안 7칙(제1칙, 제7칙, 제11칙, 제14칙, 제19칙, 제31칙, 제37칙)이다. 그다음으로는 운문의 공안 5칙(제15칙, 제16칙, 제21칙, 제39칙, 제48칙)이요, 세 번째로는 오조법연의 공안 4칙(제35칙, 제36칙, 제38칙, 제45칙)인데, 제38칙 우과창령은 오조록에도 없는 공안이다. 아마 오조법연서 4대 월림사관을 거쳐 무문으로 이어지는 법계(法系)에서 실내비사로 구전되어 전해진 이 공안이 무문에 의해서 문자로 기록된 것 같다(平田高士의 견해). 이것은 무문이 오조법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무문관〉에서 강조한 무문의 선은 무엇인가? 전광석화와도 같은 직관지(直觀知)로 식정(識精)을 타파하는 것이다. 즉 당대(唐代)의 마조(馬祖) 백장(百丈) 남전(南泉) 조주(趙州)에게 근거를 두고 오조법연과 대혜종고의 간화선(무자 공안 참구)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무문은 〈무문관〉을 집필하고 있다. 말하자면 오조법연에 의해서 주목받고 대혜종고에 와서 간화선의 기본 공안으로 채택된 무자 공안이 〈무문관〉에 와서는 간화선의 핵심 공안(〈무문관〉 제1칙)으로 정착된 셈이다.

무문관, 벽암록, 종용록의 차이점

〈무문관〉에는 〈벽암록〉이나 〈종용록〉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공안이 다수 수록돼 있는데, 예를 들면 앞서 이미 언급한 제 35칙 천녀이혼, 제38칙 우과창령, 제 20칙 대력양인, 제 8칙 해중조거, 제 4칙 호자무수 등이 그것이다. 이 공안들은 무문과 동시대거나 무문보다 약간 앞선 시대 선승들 공안인데 바로 이 점이 〈벽암록〉 〈종용록〉과 다른 점이다.

그러면 〈벽암록〉 〈종용록〉 〈무문관〉 이 세 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째, 문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벽암록〉 문장은 날카롭고 이지적이며, 〈종용록〉은 부드럽고 섬세하다. 반면 〈무문관〉의 문장은 단도직입적이며, 간결하다. 둘째, 체제의 측면서 본다면 〈벽암록〉은 고칙 공안(古則公案), 설두송고(雪竇頌古), 원오극근의 수시(垂示), 착어(著語), 평창(評唱)으로 되어 있다. 〈종용록〉은 고칙공안, 천동송고, 만송행수의 시중(示衆), 착어, 평창으로 되어 있다. 〈무문관〉은 고칙공안, 무문 자신의 평(評)과 송고로 되어 있다. 셋째, 공안 선별 방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벽암록〉은 제1칙 달마의 공안으로부터 시작, 조사선을 강조한다. 〈종용록〉은 제 1칙 세존의 공안으로부터 시작, 불조정전(佛祖正傳)의 정통선을 강조한다. 반면 〈무문관〉은 조주의 무자 공안으로부터 시작, 일정한 순서 없이 그냥 무작위로 공안을 뽑았는데 간화선 강조한다.

〈무문관〉에는 〈벽암록〉과 동일한 공안이 다음의 4개밖에 없다. 제 3칙 구지수지, 제 14칙 남전참묘, 제 15칙 동산삼돈, 제 32칙 외도문불. 그리고 무자 공안을 타파하고 난 다음에나 뚫을 수 있는 다음의 공안 다섯 개가 〈무문관〉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 제 19칙 평상시도, 제 27칙 불시심불, 제 30칙 즉심즉불, 제 33칙 비심비불, 제 34칙 지불시도가 그것인데, 이로 미뤄본다면 〈벽암록〉과 〈종용록〉을 거쳐 〈무문관〉에 와서는 공안에 대한 탐구(참구)가 보다 섬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안에 대하여

공안(公案)이라는 말은 원래 공부(公府), 즉 관공서의 결재가 난 공문서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공안이라는 말이 선에서는 수행의 깊고 옅음을 측정하는 계기판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 즉 불조(佛祖)의 언행이나 문답은 관공서의 결재가 난 공문서처럼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므로 이를 '공안(公案)'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공안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선의 용어로 사용한 사람은 당대의 선승 황벽이다. 공안은 당대에 발전하고 송대에 와서 크게 흥성했는데 송대에 들어와서는 이 공안에 접근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① 대어(代語)
=묻는 자가 대답하는 자 대신 대답하는 것
② 별어(別語)
=상대의 대답이 신통치 않을 경우, 물었던 자가 대신 대답하는 것
③ 송고(頌古)
=고칙 공안의 경지를 송(頌)으로 읊는 것
④ 염고(拈古)
=고칙 공안에 대한 산문적인 해설
⑤ 평창(評唱)
=고칙 공안에 대한 평론과 제창 (提唱, 배경 설명이나 보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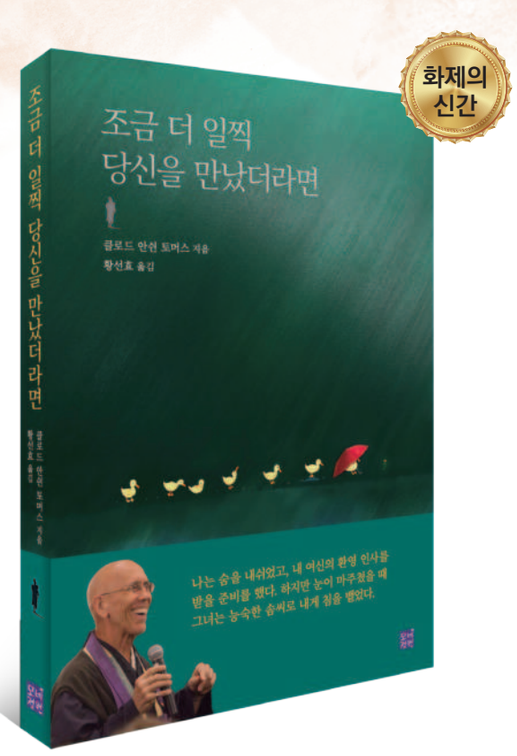
▲역자 **석지현 스님**은?

우리나라에 '선시'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특유의 감각적 시선으로 작품을 자신만의 색채로 새롭게 읽어냈다. 13세 때 충남 부여 고란사로 출가했으며,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詩) 부문에 당선돼 승려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명상에 심취해, 인도 네팔 미국 예루살렘 티베트 등지를 오랫동안 방랑했다.

이 '방랑의 시절' 동안 인도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네팔의 히말라야, 부탄의 산길, 예루살렘의 불타는 사막을 여행했다. 미국서 5년 동안 살면서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필라델피아서 만난 이슬람 수피의 가르침도 인상적이었고, 다람살라서 만난 달라이 라마의 소탈함과 따스한 자비심에 큰 감동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행과 글쓰기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 불교 경전과 힌두교, 티베트 불교, 선어록 등을 망라해 저술활동을 하는 것도 이런 만행 덕분이다.

편 · 저 · 역서로는 〈禪詩〉 〈禪詩 감상사전 전 2권〉 〈벽암록 전 5권〉 〈종용록 전 5권〉 〈법구경〉 〈바가바드 기따〉 〈우파니샤드〉 〈반야심경〉 〈숫타니파타〉 〈불교를 찾아서〉 등 다수가 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6

▶한줄요약
이주석 기자와 송 서화가는 인도 현지에서 천추사원 금어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탱화를 그리던 금어는 언제부턴가 칼을 그리기 시작했고 암자의 화재로 죽자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리던 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떠났다는 것이다.



성물을 찾아 떠난 금어의 아들

성물을 찾아서 ②

내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다.

그가 고개를 내저었다.

-취재 핑계를 대고 그 성물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푸른 보자기가 덮인 석관만 얼핏 본 적은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자고 보채지 못하겠더군요. 석관을 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나는 조금 실망스럽게 되뇌었다.

-성물이 사라졌다는데…?

내 물음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관심을 가지니까 인도 정부에서 헛소리를 퍼뜨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겠지, 싶었다.

-그 성물의 유무를 취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황당하기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도 다시 그곳으로 가봐야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늘 기별을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종정 예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인연이 되었는데 늘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지요.

-그렇군요.

-어이 심 작가!

입구 쪽으로 눈길을 주던 오오스마 기자가 누군가를 불렀다.

입구로 들어서던 사내가 오오스마 기자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손짓했다. 이곳으로 오라는 손짓이었다.

사내가 다가오는 사이 오오스마 기자가 나를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소설 쓰는 사람입니다. 심기윤이라고….

심기윤? 역시 한국 사람?

사내가 앞으로 와 섰다. 삼십 대의 한국 사람이 맞았다. 머리를 길러 뒤로 묶었는데 얼굴이 동글고 코가 우뚝했다. 키가 작달막한데 눈빛이 맑고 하관이 빠졌다. 몇 가닥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때문인지 이마의 음영이 묘했다.

-늦었군.

오오스마 기자가 사내를 보며 말했다.

-음. 어딜 좀 들렀다 오느라….

우리를 살펴보며 사내가 말했다. 둥근 얼굴만큼이나 음성에 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하게. 한국에서 오신 기자분들이네.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사내가 나를 보더니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심기윤입니다.

-이주석입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에서 대필 작가 노릇이나 하다가 인도에 여행과 오오스마 기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글이 되지 않아 방황하던 중에 오오스마 기자의 권유로 인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물었다.

-벌써 8년이 넘어가네요. 이곳에서 뭐 하나 건지려고 버둥거리다 보니 이곳 사람이 다 됐습니다.

넷이 차나 하자며 들어간 거리 찻집에서의 대화였다. 그 후 여러 말들을 나누었다. 돌아오면서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게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이었다. 편안해질 이유가 없는데 편안해진다는 게 이상했다.

심기윤이 스리나가르의 성물을 소재로 소설을 쓰고 있다기에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그 성물을 보았습니까?

그 역시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소설화하려고 생각하셨는지…?

비록 대필 작가를 하고 있었지만, 소설을 놓을 수가 없어 소재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과 만났다고 했다. 그전에는 대필하면서도 고독과 숙명의 삶이 교차하는 현대인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 절망스러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작가에게 있어 평범한 일상은 죄악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제법 말에 멋을 부렸다. 작가는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위해 떠나야 하는 한 마리 작은 새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런 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나 역시 말에 좀 멋을 부렸다.

-그것이 작가의 운명이겠지요.

그가 제법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가에게 있어 세상은 너무 눈부셔요.

그는 말을 끝내고 수줍은 듯이 웃었다. 그 웃음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눈부신 계절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떠날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느 날 신문사에 다니는 저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석존의 성물을 기사화하던 중에 그에게 연락했던 모양이었다. 그 바람에 그 사건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오오스마 기자는 소설 거리나 찾으며 이곳까지 와 빌빌거리는 친구가 안타까워 소재 제공을 제대로 한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저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가 오오스마 기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상한…?

내가 되물었다.

-천추사원 탱화를 그린 금어가 언젠가부터 부처 그림은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리다가 암자에 불이 나 타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자 함께 있던 아들은 스리나가르로 떠났다는데,

-천추사원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한국의 광선사 말사가 맞지요?

-맞습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그럼 그들이 머물던 암자는 천추사원의 별채였겠군요?

인도에 가면 천추사원 금원 조실을 만나 보라던 국장의 말을 떠올리며 내가 물었다.

-천추사원을 짓기 위해 먼저 지은 암자이지요.

-그럼, 거기 그들이 머물렀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이 스리나가르로 떠나다니요?

-그곳 조실스님에게 아버지가 그리던 칼을 찾아 떠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나가르에 있는 그 성물?

-그렇습니다.

-왜 부처를 그리던 금어가 칼을 그리게 되었고 아들은 그 칼을 찾아 떠나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글쎄, 우리도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하고 뒤이어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을 찾던 중에 의심이 갈만한 상황들이 발견되었어요.

-화재의 원인요?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암자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아들이…?

내가 너무 놀라자 오오스마 기자가 감당을 못하고 손을 내저었다.

-아니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수사 중이라….

하지만 수사 중인데 아들이 도망치듯 떠났다는 겁니다.

-도망을 쳐요?

-바로 그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이상해요?

-왜 아버지는 칼만 그렸으며 아들은 그 칼을 찾아 떠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군요?

내 물음에 이번에는 심 작가가 고개를 내저었다.

-아직 별 진전은 없습니다만…. 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긴 성물을 찾으러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조실스님에게 그 칼을 찾아 떠난다고 했다는데 그 조실스님이 천추사원 조실스님이 맞지요?

내가 확인하듯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스님을 만나보면 알 거 아닙니까?

-조실스님을 만나 보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뭔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입을 열지 않아요.

나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고 그들의 말을 종합해 보았다. 이곳에 금어가 아들과 함께 와 탱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어가 언젠가부터 부처의 모습은 그리지 않고 스리나가르의 성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다 불이 나 타죽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아버지가 그리던 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떠났다. 왜?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나는 고개를 내젓고 말았다. 무슨 이유에서 아들을 의심하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기자와 작가? 그런 족속들이지 않은가. 기자와 작가가 붙었으니 비약하기 좋아하는 그들이고 보면 무슨 상상을 못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국장의 말과 종정이 꾸었다는 꿈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가만, 금어의 아들? 금어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종정 예하가 보았다는 그 아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타로 변하더라는 바로 그 아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뉴델리에서 며칠 ①

송 서화가와 내가 오오스마 기자를 만나 하늘의 낙엽이 떨어져 쌓인다는 천추사원을 찾은 것은 다음날이었다. 어딘가 원치 않는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금어가 있었다는 천추사원의 조실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지만, 오오스마 기자와 심 작가가 내일 시간이 나니까 함께 가자고 해 그러자고 약속해 버리고 말았다. 길도 설었지만 그게 좋을 것 같아서였다.

천추사원은 선승(禪僧)으로 유명한 금원 스님이 이곳으로 들어와 지은 절이었다. 서구사회에 불교를 알리기 위해 인도에 세워진 이 절은 종파를 초월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렇기에 초파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종교의 벽을 허물자는 기치 아래 스님과 타 종교인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리고는 하였다. 초파일이 되면 기독교인도 절로 올라왔고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스님들이 성당으로 내려갔다.

내가 알고 있는 천추사원에 대한 정보는 그 정도였다. 그것도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 검색기를 동원한 결과였다.

뉴델리에서 한참을 변두리로 빠지다가 다시 번화한 시내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여기저기 소재지를 알리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팻말대로 가다 보니 어느새 사원이 나타났다. 모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계속〉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원금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수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부방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이체 희망일
□ 5일 □15일 □2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④ 세계적인 명상 붐과 한국불교의 과제 2



▶한줄요약
불교계가 치유 명상 성취에 자극받아 대중 눈높이 맞춘다고 깨달음 명상 포기한다면 불교 존재 의의와 가치를 잃게 된다. 불교계는 이에 대한 바른 진단과 대안 제시를 통해 불교 명상의 가치를 정확히 전달해 나가야 한다.

대중 눈높이로 명상 쫓다간 불교 존재 잃어

명상은 동양에서 시작했으나 21세기에 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과학과 결합하여 대중화,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명상이 주류 문화가 되었다.

이런 명상 붐은 이제 한국에도 역수입 되어 삼성과 같은 대표 기업에서도 임직원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었고 최고 시설의 명상 시설까지 건립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명상 붐에 대하여 한국불교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필자가 삼성그룹에서 진행한 화두 명상을 하는 직원들.



1974년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 존 카빗진 박사(오른쪽). 존 카빗진은 이후 MBSR이라는 세계적인 치유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출처=현각스님의 블로그 Mirror of Zen Blog

서구 치유 명상, 불교 명상에서 배워 가다

명상은 본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문명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 명상법을 전승 발전시켜 온 것이 불교 명상이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명상에 들어 중도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하였다. 이후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중도와 깨달음으로 가는 명상 수행에 대한 말씀이다. 이러한 불교의 명상 수행은 남방과 북방 승가의 전통으로 각각 전승 발전하여 현대에 이르렀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서구의 명상은 불교의 깨달음 명상에서 배워간 것이다. 미국 MIT대 존 카밧진 박사가 만든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은 서양에 명상을 과학과 결합시켜 대중화에 성공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카밧진은 스스로 한국불교 숭산 스님에게 참선을 배운 제자라 자처한다. 이후 달라이라마와 남방 상좌부 승가의 전통 수행법인 위빠사나 명상도 수련하여 자기의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국 삼성그룹에서 개발한 명상도 이 카밧진의 MBSR을 모델로 자체 개발한 것이다(이것은 필자가 삼성그룹 MTF팀을 만나서 확인하였다. 당시 삼성그룹 명상팀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명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임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라 했다).

그런데, 카밧진 등 서양의 명상 지도자들은 명상의 목적을 심신의 건강 회복 즉 치유에 두고 있다. MBSR 명상도 그렇고 삼성이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도 목적은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신심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구의 명상을 '치유 명상'이라 이름 짓고자 한다.

치유 명상이 성공한 이유

서구에서 개발된 치유 명상은 불교에서 배워갔지만, 불교 보다 더 광범하게 보급되고 크게 유행하고 있다. 반면에 불교 명상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카밧진과 같이 미국에서 치유 명상 붐을 일으킨 명상지도자들은 대부분 재가자들이다. 이들은 불교의 다양한 명상 전통에서 수련한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 과학, 의학, 심리학과 결합하여 명상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과학화, 프로그램화하였다. 서양의 선진국 시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초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데 명상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간 것이다.

치유 명상에서는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면 뇌에서 행복 물질이라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초조 불안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뇌 부위 활동이 감소하고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증대한다. 스트레스가 줄고 평상심을 회복하며 대인 관계도 좋아진다고 과학자들은 뇌를 스캔하는 MRI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서구의 치유 명상가들은 이와 같이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를 증명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특히 초조 불안한 마음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에게는 명상이 약물에 의한 치료보다 더 좋은 자연 치유책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서구의 치유 명상은 대중화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나 서양인들은 기독교 신앙과 문화에 오랜 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명상을 신비주의나 미신으로 보았는데, 명상의 효능이 과학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치유 명상이 서구에서 대중화에 성공한 또 다른 요인은 프로그램화와 수월한 지도자 양성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참선을 안내할 때 그냥 화두를 주고는 좌선을 시킨다. 화두가 무엇이고, 어떻게 참구하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가 드물다. 참선 지도자 양성이란 말조차 금기시한다.

서양 대학·대기업 명상 붐 불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서 보편화 돼

해탈 깨달음 목적인 불교 명상과
생산성 위주 치유 명상 구별돼야

하지만, 서구의 치유 명상은 현대 교육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명상하는 이유, 방법, 효과 등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점차 몰입하게 프로그램화하였다. 또한 쉬운 교재와 함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한다.

서구 치유 명상의 눈부신 성과

이렇게 치유 명상은 과학화, 프로그램화, 그리고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실로 눈부신 성과를 보여준다. 특히 대중의 주목을 받는 스포츠 스타들의 명상은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 프로농구리그 NBA의 역대 최고 선수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5분 이상 명상하는 습관이 있었다. 또 조던에게 명상을 하도록 권한 NBA 역대 최고의 감독 필 잭슨은 리그 우승을 11회나 하였는데, 그는 그 비결을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 명상을 하게 하여 자기 실력 발휘에 집중하게 한 성과라고 자평하였다. 필 잭슨 감독은 저서 〈일레븐 링즈〉에서 일본 선승들로부터 참선을 배워서 지혜와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근래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스타 엘링 홀란드 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할 때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명상 자세를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제 치유 명상은 미국 산업계에도 진출하여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마다 명상실이 운영될 정도로 보편적이다. 특히 구글에서는 차드 멍 탄이라는 엔지니어가 회사에 명상 동아리를 만들어 사내 명상 강사를 하다가 마침내 명상 교재를 책으로 출판하여 세계적인 명상 스타로 떠올랐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후 구글 출신 명상가의 활약은 산업계에 명상 교육 붐을 불러일으켜 기업 임직원들에게 명상 교육이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다. 우리나라 삼성도 명상 교육을 광범하게 하고 있다. 필자도 수 년 전에 삼성그룹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화두 참선을 화두 명상이라 하여 1박2일 20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화두 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초청 받아 사원들에게 프로그램을 할 경우 종교색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업은 사원들에게 불교의 참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다스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지혜와 힘을 키워서 업무를 잘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두 참선이란 말도 화두 명상으로 바꾸고, 깨달음이나 좌선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고 종교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말을 사용해야 했다.

어쨌든 명상이 자본주의의 첨단 기업에까지 보급 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상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소비될 정도로 명상이 필요하고 그만큼 대중화, 보편화되었다는 말이다. 이처럼 서구의 치유 명상은 과학화, 대중화를 통해 눈부신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명상 앱 '캄(Calm)'은 미국 명상, 릴랙스 분야에서 최고 앱인데, 기업 가치로 22억달러(약 2조 5천억대) 규모라 한다. 이제는 치유 명상으로 큰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치유 명상 지도자들이 명상 콘텐츠로 부자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명상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명상센터도 번창하고 있다. 서구 치유 명상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에도 완벽하게 적응하여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치유 명상의 성취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 명상에서 유래한 치유 명상의 눈부신 성장을 불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선 명상이 대중화, 보편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불교 명상과 흐름을 같이 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불교 명상과 치유 명상은 그 목적이 다르다. 치유 명상은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줄여서 일을 잘 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안내한다. 특히 산업 명상은 심신 치유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불교 명상은 생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깨달음을 향한 불교 명상을 하면 심신 치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즉 깨달음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평상심을 회복하여 생활도 잘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것이다.

치유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괴로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런 치유 명상과도 동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치유 명상의 그런 한계를 알려주면서 깨달음 명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것이 불교의 존재 이유이고 깨달음 명상의 가치이다.

만약 불교계가 치유 명상의 성취에 자극 받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깨달음 명상을 포기하고 치유 수준으로 명상을 안내한다면, 불교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불교계가 이에 대한 바른 진단과 대안 제시를 통해 불교 명상의 가치를 정확히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명상의 상품화, 세속화가 확산되면서 불교 명상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한국불교의 승가 명상 수행은 나이든 꼰대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릴 것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출강 및 통신 2023학년도 제32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2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3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홈페이지 :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디지털 불교통신대학
대학장 서무선
기존의 통신대학 과정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핸드폰, PC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강하였습니다.
■ 원서교부 : 2023년 1월 부터
■ 교육과정 : 1학기 ~ 4학기(각과정 6개월/2년후 졸업)
■ 개 강 : 2023년 3월 16일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장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3년 1월 부터
■ 개 강 : 2023년 3월 2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작법무
교수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3년 3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④ 남양주 흥국사 목조석가모니불삼존좌상의 광배

▶ 한줄 요약
광배는 부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상징한다. 광배 조형 속에는 신성과 완전한 이상미가 담겨 있다. 시방삼세에 무한하게 두루 비추는 광명변조의 지혜와 자비의 빛, 그것이 불상 광배의 의미다.



광배, 생명에너지로 충만한 법계우주

광배 속에 부처님의 신성과 이상미 구현

부처님의 형상은 경전을 토대로 한다. 〈대지도론〉 4권에서 부처님의 외형적 형상에 대해 세세히 설명한다. 부처님의 몸은 '32상(相) 80종호(種好)'의 특징을 띤다. 줄여서 '상호(相好)'라 부른다. 32상은 큰 대목으로 설명한 내용이고, 80종호는 세부 내용이다. 중생은 상은 볼 수 있지만, 종호는 미세하여 보기 어렵다. 32상 중에서 부처님은 몸이 금빛인 금색상(金色相)과 몸에서 한 길의 빛을 내는 장광상(丈光相)을 갖추신다. 금색 몸의 빛과 한 길의 빛 장광은 항상 갖추고 계신 상광(常光)이다. 영산회상과 같은 설법의 자리에선 따로 경이로운 광명을 놓으신다. 그때의 빛은 방광(放光)이다. 부처님은 빛으로 삼천대천세계에 광명을 놓으신다. 불상이나 불화에서 부처님은 광배(光背)를 갖춘 형상으로 나투신다.

불상 조형의 광배는 부처님의 본질을 함축한다. 광배는 무엇인가? 광배는 부처님의 몸에서 내는 빛의 상징조형이다. 부처께선 왜 광명을 놓는 것일까? 빛의 본성은 밝음이다.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탐진치(貪瞋癡)에 찌든 중생의 마음에 놓는 진리의 빛이다. 동시에 봄 햇살과 같은 대자대비의 빛이다. 빛이 곧 부처님의 진리이고 자비이다. 무상정등각을 증득한 분이기에 금빛 자금색 몸으로 빛나고, 발바닥에서, 혀에서, 치아에서, 미간 백호에서, 육계에서 광명의 빛을 놓으신다. 그 때의 빛은 물리적이며 현상학적인 빛 차원을 넘어선, 시공을 초월한 빛이다. 그토록 성스럽고 초월적인 빛을 어떻게 구상화 할 수 있을까? 광배는 부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상징한다. 광배 조형 속에 신성과 완전한 이상미가 담겨 있다. 부처의 본질은 무한한 둥근 빛이다. 시방삼세에 무한하게 두루 비추는 광명변조의 지혜와 자비의 빛, 그것이 불상 광배의 의미다.

현존하는 고색창연한 목조광배 7점

대좌와 광배까지 온전히 갖춘 불상은 흔하지 않다. 대좌-불상-광배의 형식을 온전히 갖춘 불상은 대부분 석불상이다. 석조광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불상은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경주 남산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과 경주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 등 두루 살펴 볼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조각하기 쉬운 나무로 만든 목조광배는 드물다. 잦은 전란과 화재 때문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고색창연한 목조광배로는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석가모니불삼존좌상의 목조광배 △봉화 축서사 보광전 석조비로자나불의 목조광배 △김제 금산사 대장전 목조석가모니불의 목조광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소조아미타여래불의 목조광배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철조약사여래와 철조비로자나불의 목조광배 △무주 안국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목조광배 등 7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나 목조불상에 맞춰 목조광배를 결구한 사례는 남양주 흥국사, 김제 금산사, 무주 안국사 세 곳에서만 희귀하게 볼 수 있다. 세 곳의 목조광배는 하나같이 도금을 입혀 금빛 몸을 갖춘 불상과 함께 금빛 찬란하다. 세 목조광배는 하나의 뚜렷한 공통점을 갖는다. 불상의 크기에 비해 광배가 특별히 크다는 점이다. 광배 크기가 불상의 두 배에 이를 정도다. 특히 금산사 대장전 목조광배의 경우 불상 크기는 118cm인데 광배는 260cm로 두 배가 훌쩍 넘는다. 커다란 금빛 광배는 부처님의 위엄과 아우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광배가 불상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부처님의 신체 부위와 광배가 따로 분리되는 부조화의 역효과도 뒤따른다. 머리 뒤편에 있어야 할 두광이 공중에 떠있는 기묘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은 금산사와 안국사 목조광배에서 보다 뚜렷하다.

안국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목조광배는 남양주 흥국사 목조석가모니불삼존좌상의 목조광배와 상당히 유사하다. 불상과 광배 모두 목조이고, 보살-부처-보살을 봉안한 불보살 삼존상의 구성도 동일하다. 불보살 세 분마다 목조광배를 갖추고 있다. 금빛 목조광배를 저마다 갖춘 불보살 삼존상은 흥국사와 안국사 두 곳에서만 볼 수 있다. 그중에서 남양주 흥국사의 목조광배는 희소성과 탁월한 아름다움까지 두루 갖춰 한국 불상의 목조광배를 대표한다.

부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 상징
광명변조 지혜 · 자비의 빛 의미
조각이 쉬운 목조 광배 드물어
흥국사 한국 대표하는 목조광배

광배의 중심 소재는 넝쿨연화문과 화염문

남양주 흥국사는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묘를 관리하면서 왕실의 안녕을 축원하는 원당사찰이다. 그로 인해 조선 왕실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았다. 왕실 원당사찰로서의 흔적은 대웅보전 앞 H자 대방(大房)과 대웅보전 지붕 추녀마루에 있는 잡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방과 잡상은 궁궐건축 양식에서 나타난다. 특히 흥국사가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소사찰의 한 곳이었음은 주목거리다. 화소사찰은 불화 그리는 화승이나 불상을 만드는 스님 장인인 승장들을 길러내고 배출하는 사찰을 이른다. 대표적인 화소사찰이 북방화소의 금강산 유점사, 남방화소의 공주 마곡사, 경산화소의 남양주 흥국사였다. 서울 · 경기 지역의 경산화소로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장인 '비수갈마' 불모들을 양성해냈다. 그 무렵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다. "흥국사 중은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도 부지깽이로 시왕초를 그린다." 영산전과 시왕전 내 · 외벽에 그린 빼어난 붓질의 벽화들, 독특한 육각형 만월보전 건축 등이 우연이 아니다. 대웅보전의 목조불상과 광배도 그 맥락의 산물로 추정된다.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석가모니불삼존좌상과 목조광배


사진 왼쪽부터 봉화 축서사 보광전 석조비로자나불의 목조광배, 김제 금산사 대장전 목조석가모니불의 목조광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소조아미타여래불의 목조광배,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철조약사여래의 목조광배

대웅보전에 모신 삼존은 목조 석가모니불삼존상이다. 보현보살-석가모니불-문수보살 구도로 봉안했다. 보현보살은 73cm, 석가모니불은 79cm, 문수보살은 71cm 크기다. 삼존 각각 독립적인 목조광배를 갖췄다. 목조광배의 크기는 154cm로 불상 크기의 두 배에 이른다. 광배는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으로 분리하지 않고 거신광(擧身光)으로 통합해서 표현했다. 보현보살의 광배는 4장의 판목을,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의 광배는 3장의 판목을 'ㄷ'자 무쇠 못으로 강하게 결속하여 광배 모양을 만든 후 통판투조와 양각기법으로 조각했다. 특히 문수보살 광배의 경우 3장의 판목을 대단히 섬세하게 연결해서 앞에서 볼 때 접합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광배 장엄에 사용한 중심소재는 두 가지다. 넝쿨연화문과 불꽃 형상의 화염문이다. 넝쿨과 연꽃을 결합한 넝쿨연화문은 보통 '보상화문'이라 부른다. 우아한 곡선 넝쿨과 탐스러운 꽃으로 관념적 이상화를 이룬 인류문화 보편의 문양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광배는 빛인데 어째서 넝쿨과 꽃을 표현하는 것일까? 광배 속 꽃은 연꽃이다. 세 광배마다 여섯 송이의 연꽃을 새겼다. 연꽃잎은 잎맥을 한 줄 한 줄 대단히 섬세하게 표현해 사실감을 살렸다. 연꽃은 활짝 핀 것도 있고, 안으로 꽃잎을 웅크리고 회전하는 듯한 웅련화도 있고, 아직 덜 핀 봉오리도 있다. 위에서 본 평면연화도 있고 측면에서 본 것도 있다. 찬찬히 보면 활짝 핀 연꽃은 부처님의 광배에만 표현돼 있다. 보주로 연이은 영락장식 테두리도 부처님의 광배에만 있다. 보주는 연꽃과 함께 완전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두 보살의 광배에 있는 연꽃은 웅련화이거나 덜 핀 봉오리다. 보살의 지위는 완전한 깨달음의 단계가 아니다. 불보살의 깨달음의 정도를 연꽃의 개화 정도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연꽃은 열반적정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넝쿨은 왜 등장하는가? 현실의 연꽃은 넝쿨식물이 아니다. 그런데 왜 넝쿨과 연꽃은 하나로 연결돼서 보상화 문양으로 완성되는가? 넝쿨은 깨달음으로 가는 부단한 수행의 길이다. 넝쿨은 원인이고 연꽃은 선업과 공덕수행의 과보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공덕장엄으로 핀다. 광배 속에 깨달음의 완성을, 진리의 길을, 열반적정의 꽃을 장엄하고 있다. 광배는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한 법의 자리에 엄숙한 꽃으로 장엄한다. 광배 속 꽃은 화엄의 꽃이다.

광배에 생명력의 근원인 빛과 물 에너지 조영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다. 진리의 빛, 자비의 빛을 형상화 한 광배 테두리는 왜 불꽃 형상으로 이글거리고 있는 것일까? 왜 불꽃인가? 부처님은 대자대비의 천백억화신이다. 만유에 생명에너지를 불어넣는 태양과 같다. 대자대비는 생명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자애를 바탕으로 한다. 연민과 사랑이 생명에너지의 근원이다. 그것은 햇살과 같고 봄과 같다. 부처님의 빛은 차별 없이 두루 비춰 무명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이 둘이 아님을 가르치는 자비광명으로서 태양과 같다. 화염문은 부처님의 본질이 빛과 생명에너지의 근원인 태양과 다르지 않음을 환기시켜 준다. 광배가 생명에너지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광배 아래 부분에 표현한 청색 물결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잘 보이지 않는 광배 아래에 놀랍게도 청색 물결이 넘실댄다. 빛의 형상인 광배에 물이라니! 봉화 축서사 보광전 광배 하단에 물고기가 유영하는 연지를 조영한 것도 같은 원리일 것이다. 부처님의 광배 속에 생명력의 근원인 빛과 물 에너지를 조영해두고 있다. 부처님의 광배 본질이 진리의 빛이고, 대자대비의 생명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세 광배에는 특별히 부각하고 있는 고부조의 입체가 3구씩 있다. 입체상은 화불 조형이다. 화불 조각은 따로 만들어 삼각형 구도로 끼워 결합했다. 석가모니불 광배에는 타방불인 세분의 화불을 모셨다. 보현보살 광배에는 두 분의 화불과 흰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상을, 문수보살 광배에는 두 분의 화불과 사자 탄 문수동자상을 결구했다. 세 광배 조형이 부분과 전체에서 조화로운 대칭구도를 가지도록 배치했다. 주도면밀한 통찰력과 심미안의 안목을 엿볼 수 있다. 석가모니불 광배의 한 연꽃에는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광배 속에 타방불과 수행동자가 나투고, 물결이 넘실대고 넝쿨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꽃 피고 새가 날아들었다. 광배는 생명에너지로 충만한 법계우주다. 둘도 없는 목조광배의 걸작이다.

〈사진작가〉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개 강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수업,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2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장소 안성 봉운사 (경기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일죽면 고은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010-5306-0856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목요일 교육시간표
오 전 • 9시 [천도재] 진효스님 • 10시[천도재] 진효스님
오 후 • 1시[교양과목 태평소] 대산스님 • 2시[북 타법] 진효스님
* 수업은 시간강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合掌

중요 행사문의 – 윤달 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회 장 웅천스님 010-2370-2953 /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 주 진효스님 010-5306-0856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7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 개강일시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2. 작법무(바라무·착복무)
3. 수륙재의식(매주 월요일 참석가능)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강 사 : 원명 (불교의례전공)
• 문의전화 : 010-3867-8419
• 참 고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달전사'를 검색해보세요.

사)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 명 합장

불교인문학살롱

④ 인왕호국반야경과 호국불교

▶**김태진 문학평론가**는 동아대 법학박사로 동 법무대학원 교수, 연세대 연구위원, 한국헌법학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논, 아득한 성자〉, 〈인왕반야경〉,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헌법스케치〉 등의 저서가 있다. 한국문인협회 수필가, 한국불교문학 편집위원, (사) 만해사상 실천연합 상임감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장, 글로벌 문학상 심사위원장 · 문화예술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부처님이 설한 현명한 군주 리더십

2600여 년 전, 언젠가 새해 정초에 인도 16개국의 왕들이 모여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에 대해 붓다 세존께 지혜를 구하게 된다. 그 중 코살라국 바사익 왕이 대표로 붓다께 여쭈었다.

"붓다 세존이시여, 전쟁과 같은 일곱 가지 천지 재앙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왕들이여!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출가사문과 여러 종교 성직자들과 국왕과 고위관리들이 바른 법을 행하지 않는 까닭이니. 이 모든 나쁜 습관으로부터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과거 전생에 복을 지어 제왕 등이 되었건만, 만약 왕과 그의 신하들이 복을 다 소진해서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성현들이 무관심함으로써 국가 사회적 재난과 혼란들이 마구 생겨나 어지러워 질 것이다."



경주 황룡사지 탑신 유구. 불법을 지키는 사천왕이 새겨져 있다. 경주 황룡사는 신라의 호국사찰로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 이라는 불교관이 담겼다.

이토록 재앙이 종횡으로 일어날 때, 그 때 세상이 텅 비게 될 때 호국 · 호법 · 호민을 위해 〈인왕호국반야경〉에 의지해야 함을 목숨처럼 일러주고 계시다.

필자가 대표적 호국경전인 이 '인왕경' 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부 불교학생회 시절, 은사 광덕스님께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신라는 팔관회, 백고좌 인왕법회를 열었다"는 법문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은 공직에 입문하여, 도문 스님이 일제강점기 3 · 1독립선언 33인 용성스님이 번역하신 조선어 경전중 '호국호법삼부경' 을 1987년 9월에 간행하신 덕에 〈인왕경〉을 다시금 만나게 되면서 이어진다. 하지만 이 '호국삼부경' 에는 용성 스님의 유훈에 따라 〈법화경〉과 금광명경 외에 인왕경은 번역되지 않은 채 한문 원문만 수록되어 있어 한글화의 원력을 내었다.

지난 공무원불자회장 시절인 2007년 6월 '제1회 호국영령 순직직원 천도법회' 를 현재까지 열여섯 차례 봉행해 오고 있다. 그 무렵 이를 '호국법회' 로 명명하고 나니 불교신행 공직자의 본분과 정체성을 경전에 근거해야함이 더욱 절실해졌다. 필자는 공직 퇴임을 앞두고 '진리의 사회화' 일환으로 이 시대의 언어로 된 한글 〈인왕반야경〉을 '현명한 정치지도자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지혜의 완성' 이란 부제를 달아 몇 해 전 세상에 처음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인왕경(仁王經)〉은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의 약칭으로 한역본으로는 4종류의 역본이 있었다. 서기 401년 구역으로 불리는 진나라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의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이 있고 이보다 364년 뒤인 서기 765년 새로 번역된 신역인 당나라 불공(不空, Amoghavajra)의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등 2개의 대장경 판본만 현존할 뿐이다. 필자로선 비교적 두 경전의 요체는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이를 혼용해 번역하게 됐다. 구역과 마찬가지로 불공의 신역 또한 상하 2권으로 분류하여 상권은 1.서품 2.관공품 3.보살교화품 4.이제품으로, 하권은 5.호국품 6.산화품, 7.수지품, 8.촉루품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맞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권을 요약해 보면 주로 붓다께서 증득하신 진리를 시설하셨는데, 현재 우리 몸은 꿈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요, 실제처럼 보이나 지혜로 관조하면 육신이 바로 허상이란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무아이므로, 이를 직관한다면 중생으로 겪어온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 걸림이 없는 지혜의 완성인 반야바라밀을 성취함을 일러주어, 인왕법회에 동참한 모두가 위없는 진리의 구현자로서 반야지혜를 이루도록 하였다. 호국을 위해 먼저 불법을 내적으로 수호하는 호법의 화신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하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이같은 궁극적 진리를 세상의 진리와 계합, 이를 화현하여 나라를 수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14가지 방도를 나타내 보이시고, 붓다께서 '완전한 지혜의 서' 를 왕들에게 위촉하고 간절히 당부하여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거룩한 회향을 하고 있다. 즉 호법(護法)이 바로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과 둘이 아님을 밝혀 믿음이 있는 군주를 현명한 대승보살로 부촉하여 그로 하여금 불교, 진리를 외호토록 한 것이다.

원전(原典)이 발견되지 않아 학자들은 성립 시기는 한역을 기준으로 "대략 3~4세기경으로 보인다"며 인도 기원보다는 중앙아시아나 중국 기원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왕경(仁王經)〉은 대장경에 편입돼 동아시아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떠받던 경전이었으며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호법이 곧 호국'임을 설한 〈인왕경〉
상·하권, 8품으로 구성된 대승경전
〈인왕경〉 근거 '인왕백고좌법회' 봉행
"국민을 불보살과 같이 받들어 모셔라"
부처님, 정치지도자에 대한 덕목 강조

신라의 '인왕백고좌법회(仁王百高坐法會)' 는 바로 이 경전에 근거하여 시설해 온 것이다.

특히 신라는 인왕법회를 위해 진흥왕 27년(서기 566)에 호국사찰 황룡사를 창건하고 574년에는 5m가 넘는 삼존불상을 조성, 진평왕 6년(서기 584)에 금당을 지어 안치하게 된다. 선덕여왕 12년(서기 643)에는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자장(慈藏)율사의 권유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황룡사 9층 목탑을 645년에 완공한다. 황룡사는 93년간 호국일념의 국가사업으로 조성하였다. 비록 불타 없어져 안타깝지만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 이라는 신라인 특유의 불교관이 깃든 유서 깊은 곳이다.

〈삼국유사〉에 신라와 고려는 국가적 위기를 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백일동안 '반야바라밀다' 를 암송하며 백 위의 불보살상과 등(燈), 향, 그리고 꽃으로 장엄하여 100명의 법사를 법회 높은 자리에 모셨다. 후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니 오늘날 2국 체제인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왕법회 장엄도량에 100명의 법사를 높은 사자좌에 모시고 국왕과 문무백관들은 하단에서 법회를 청하는 광경은 그 자체로 국난극복의 총화요, 국론통일의 구심점이 아닐 수 없다. 매일 같이 삼국이 서로 전쟁을 치르니 오늘은 지아비가 죽고 내일은 그 아들이 죽어가는 아비규환 속에 임금인들 더 이상 민초들의 눈물과 피, 거룩한 희생을 강요하기 쉽지 않았을 터 아닌가. 호국이 총칼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반야지혜에서 비롯되는가? 고승들의 법문 한 가지씩 백일 동안 새기고 또 새기니 마침내 호법으로 하나 되어 갔으리라.

나라위해 희생하신 무지렁이 백성들을 호국영령으로 추모하고 불법의 위신력으로 승화하니 어버이로 군림하던 왕은 어진 임금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생사를 넘어 진리를 향한 도반이 되고 마침내 관민이 하나 되어 국난극복의 원력을 성취한 것이다. 통일국가인 신라와 고려의 원천이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 것임은 〈인왕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난에 처하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반야지혜를 통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곧 호국의 길임을 보여준다. 〈인왕경(仁王經)〉은 물론 대다수 대승경전 또한 반야바라밀다를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요 모든 보살의 어머니"로서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을 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내세운다. 이는 나라에 정법구현, 파사현정이란 완전한 지혜의 길이야말로 바로 호국의 길에 다름 아님을 일러주는 것이리라.

일평생 공직을 수행해온 필자가 나라와 국민사랑이 호국이란 소신을 지켜 온데에는 어머니와 함께한 작은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평소 어머니는 "품어주고 길러준 은혜 없지 않겠으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너에게 베푸는 것이 한없으니 나라사랑의 큰 뜻을 명심하라"고 늘 말씀하셨다. 국무를 담당하던 필자에게 이 말씀은 전범과도 같은 것이었다. 오늘따라 큰 울림이 되어 마음을 때린다. "아무리 이 애미가 전쟁터에서 포탄을 피해 너를 안아 주어도 안전을 약속할 수 없다. 그것은 나라가 보호해 주는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소소한 행복 그 자체이다. 이같이 행복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나라와 사회에 환난이나 재난, 전쟁과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어머니가 소원하신 안전한 나라, 그 나라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행복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정녕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스스로 나라를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호국이야말로 우리들의 행복이자 진정한 복지이며, 우리의 현존 그 처음과 끝이 아닐 수 없다. 오래된 현재진행형이리라.

붓다께서 16명의 국왕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전국토가 적들에 의해 불타고 파괴되어 불안과 공포와 혼란이 극에 달할 때에는 국왕과 왕자와 모든 고위관리들이 오직 자신의 권력과 위력만 믿고 종교지도자들 또한 바른 법을 쇠퇴시켜 국민의 바른 행동이 없어 탐욕과 투쟁이 난무하여 붓다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질 때이다."

"무릇 임금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보지 말며, 불보살과 같이 받들어 모시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행하라."

이제 눈 밝은 국민들은 누가 국민의 뜻, 법과 원칙에 따라 행업을 실천 또는 감당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올 이 시대의 지도자인지, '현명한 정치지도자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지혜의 완성' 인 〈인왕반야경〉을 가늠자로, 언제 올지 모르는 천지재앙을 극복하는 원력과 그 의지처가 되길 소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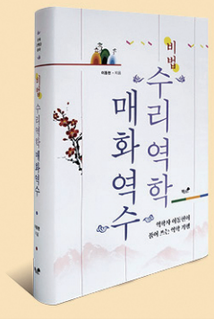
이야말로 1600여 년 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호국의 화신이던 〈인왕반야경〉을 먼지 쌓인 장경각에서 이끌어내어 이 시대의 살아있는 찬란한 말씀으로 되살린 이유이자 국민통합과 국난극복의 간곡함 아니겠는가. 이제 〈인왕경〉 화신이 되어 그 진면목을 목격하는 순간 불가사의한 인연법과 만나고, 삼계화택의 불구덩이 같았던 내 마음에는 꽃비가 내리고, 상서로운 기운과 맑은 향기가 가득하다. 오! 〈인왕반야경〉이여!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9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3월 6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6개월 과정
● 매주 월/화요일 2시~5시(3시간) ● 실관/통변중심 강의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전과목 동영상무료시청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과목 월 30만원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다산밀속사주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백천대해’는 버리고 거품만 본다

〈百千大海〉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⑦ 진여와 아뢰야식

〈원문〉 “회매(晦昧)하여 공(空)이 되고 공과 회매한 어둠이 맺혀서 색(色)이 되며, 색과 망상이 뒤섞여 색이 형상화된 것을 몸이라 하고 보고 듣는 관계인 연(緣)을 쌓아서 안으로 흔들리며, 밖으로 치닫는 어둠에 요동하는 것을 심성(心性)이라 하느니라. 한 번 미혹하여 마음이라 하고는 색신 안에 있다 하고 색신과 바깥의 산하 허공 대지가 모두 묘명한 진심 가운데의 물건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맑은 백천대해(百千大海)는 버리고, 오직 떠 있는 한 거품을 보고 큰 바다 전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강해〉 이 대목은 〈능엄경〉 가운데서도 매우 심오한 구절이다. 중생이 깨달음을 등지고 진로(塵勞) 합해진 배각합진(背覺合塵)의 이유를 밝힌 대목으로 매우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다. 중생이 미혹한 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참 마음인 진아(眞我)는 모르고 몸을 ‘나’ 라고 하고 망심(妄心)을 ‘나’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悟) 가운데 미혹(迷)을 잘못 아는 것이라 하고, 이것 때문에 중생이 뒤바뀌졌다(顚倒) 하였다. 다시 말해 미혹해진 마음을 ‘마음’ 이라 한다는 것이다.

회매(晦昧)란 말은 캄캄한 어둠이란 말로 깨달음을 등진 시초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명(無明)이다. 기신론에서 말하는 여실히 진여법이 하나(一)임을 알지 못하는 불각(不覺)의 상태다. 이 무명을 바람에 비유하여 ‘홀연히’ 생긴 것이라 한다. 진여가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기 시작한 최초의 찰나가 잠재적 업(業)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이것이 아뢰야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진여는 불생불멸하는 것인데 아뢰야식은 생멸이 시작된 찰나라 동요가 일어난 것이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생긴 상태라는 것이다. 이때의 진여와 아뢰야식이 물과 파도의 관계라 고요하던 것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하나가 아니다(非一)’ 라 하고 물이 움직여 파도가 되었으므로 물과 파도가 다르지도 않다 하여 ‘비이(非異)’ 라고 한다. 그래서 아뢰야식을 설명하면서 쓴 말이 비일비이(非一非異)로 표현되었다.

미혹(迷惑)된 것이 무명 때문인데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미(迷)이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 수 없다. 이것이 미혹이고 또한 무명이다. 십이인연설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중생의 세계는 무명에서 시작된다. ‘회매하여 공이 되었다’ 는 공(空)은 허공과 같은 개념이지만 다분히 형이상학적인 말로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굳이 말하자면 어둠의 정신적 공간, 내지 미혹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둠이 맺혀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져 물질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의 사대(四大)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색이 망상과 뒤섞여 망상으로 모양을 갖춘 것을 ‘몸’ 이라 하는데 육신은 고정된 모습이고 몸이 감관을 통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망상인데 이른바 육체와 정신을 합하여 그것이 몸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안으로 요동하고 밖으로 치닫는다’ 는 것은 망상인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 밖으로 나와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하여 외부 경계를 쫓아다닌다는 말이다. 육근(六根) 육진(六塵)을 상대하는 것이 밖으로 경계를 쫓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주객이 분리되어 심식(心識)이 끊임없이 분별을 일삼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식심이 일어나는 그것이 마음의 전부인양 생각하여 마음이 사대인 몸과 망상인 정신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허공이나 대지 등은 마음 밖에 있는 객관의 경계라고 여기고 그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인 줄 모른다고 하였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마음 밖에 객관의 경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것을 비유하여 바다 전체를 모르고 바닷물 위에 생긴 거품 하나를 보고, 바다 전체라 여긴다고 했다.

비유로 든 말 중 ‘백천대해를 버리고 한 거품만을 잘못 알아 바다 전체라고 안다’ 는 것은 백천대해가 중생의 참 마음인데 그걸 모르고 망상을 일으키는 그것이 마음이라고만 생각한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제도 대상 많을수록 ‘불공여래장’ 증장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⑦ 자비관

8식의 틀 안에 7식이나 6식을 갖춘 채로 존재하면서 심식의의 정보를 자기로 알게 된다. 이 중생은 스스로의 진여심이 분리돼서 진여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원인 모를 외로움에 빠져서 대상 없는 그리움에 젖어 있을 뿐이다. 이때의 그리움이 환희지에 들어있는 보살을 깨운다. 보살이 해탈지견으로 자기 중생을 인식하면 진여심과 생멸심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이때가 ‘이구지’ 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구지에 들어가면 열세 번째 자비관이 성취된 것이다.

이때부터 보살은 자기 중생을 제도하기 시작한다. 먼저 밝은성품을 생성해서 중생을 감싼다. 그런 다음 중생의 생각을 무념처로 일치시킨다. 밝은성품으로 중생을 감싸는 것이 ‘발광지’ 이다. 중생의 생각을 무념처로 일치시키는 것은 ‘염혜지’ 이다. 발광지에 들어가면 열네 번째 자비관이 성취된 것이다. 염혜지에 들어가면 열다섯 번째 자비관이 성취된 것이다. 중생의 감정을 무심으로 일치시킨다. 그렇게 되면 무념처과 무심처에 중생의 심식이 자리하게 된다. 보살의 진여심에 중생의 심식이 자리하게 되면 심과 식이 서로 교류한다. 그러면서 번뇌가 일어난다. 이때의 번뇌는 보살의 진여심을 흔들어 놓는다. 이 상태를 난승지라 한다. 보살이 이 경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해탈도의 과정으로 내려올 수 있다. 난승지에 들어가면 각성을 본성의 간극에 집중한다. 그런 다음 간극의 적멸상으로 중생으로부터 일치된 심과 식을 비춰준다. 반야해탈도에서는 심식의를 분리시키면 되었지만 난승지에서는 심식의를 껴안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 과정을 넘어서기가 대단히 어렵다.

보살도 과정에서는 환희지 이후에 맞이하는 최대의 난관이다. 보살이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보현보살이 출현해서 보살을 이끌어 준다. 난승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현보살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면 보살의 화신이 강림하게 된다. 지극하게 중생심을 껴안은 상태에서 간극에 머무르다 보면 점차로 중생심이 제도된다. 간극에 머물러서 중생심을 비춰주는 것이 법신청정행이다. 간극의 적멸상으로 제도된 중생심은 불공여래장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

법신청정행에 매진하다 보면 점차로 번뇌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무념처와 무심처가 본래면목을 드러낸다. 그렇게 되면 간극으로 무념 무심을 비추면서 보신행과 화신행을 함께 병행한다.

간극과 무심을 활용해서 화신행을 행하고 간극과 무념처를 활용해서 보신행을 행한다.

삼신행이 구족되면서 점차로 암마라식이 돈독해진다. 암마라식이란 진여식과 제도된 생멸식으로 이루어진 보살의 의식이다. 해탈지견과 불공여래장이 합쳐진 9식의 체계이다. 암마라식이 갖춰지면 열여섯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보살이 암마라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중생은 견성오도의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중생을 해탈도로 이끌어 간다. 금강해탈로 무소구행에 들게 하고 간극에 머물러서 본각을 증득하게 한다. 중생이 본각을 증득하면 이때부터는 중생 스스로가 제도행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현전지라 한다. 열일곱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스스로에게서 분리된 생멸심을 제도해서 반야해탈에 들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기 생멸심의 원인이 되었던 또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생멸문을 여행한다. 그러면서 반연 중생들을 제도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원행지라고 한다. 제도의 대상이 많아질수록 불공여래장이 증장되고 그럴수록 암마라식이 돈독해진다. 열여덟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⑦ 존재성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 ‘나’ 아냐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한다고 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생길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을 증명하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버젓이 여기 있는데”라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증명한다고? 무슨 수로 너를 증명한다고 말하는 거니? 그것은 멍청한 짓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자와 같이 멍청한 짓을 많이 하여야 한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있는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불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도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었다. 이것은 평범한 말 같지만 평범한 말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감각 기관인 오감이 인지적인 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나’ 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해를 받은 것이 된다. 여기에서 오감이 왜 방해가 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존재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고 의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라는 단어는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이지만, 보통은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 중요한 단서인 이 단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나’ 라는 단어를 너무 평범하게 사용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 라는 단어를 맹신하는 것은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대명사라서 사실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다른 품사들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명사로 사용하는 개, 고양이, 소, 말, 원숭이, 호랑이 등의 이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름이 정말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나’ 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다. 주체에 대한 온전한 관점이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나’ 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풀지 않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문장은 외도들이 말하는 상불사의(常不思議)한 자각성취(自覺聖趣) 경계와 제일의(第一義)의 경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 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이 풀려버리면 ‘나는 생각한다.’ 라는 허상의 문장으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문장 ‘고로 존재한다.’ 는 진리의 의미로 증명되는 문장이 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불사의(常不思議)한 자각성취(自覺聖趣) 경계와 제일의(第一義)의 경계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다.

“자상(自相)의 인(因)이 자성(自性)을 아는 것은, 조건 없는 것과 같고 토끼의 뿔과도 같아 본래 그런 것이 없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무심코 하는 말 중에 ‘맛있다, 맛없다’ 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면 음식을 먹었다면 ‘맛있다’ 는 말과 ‘맛없다’ 는 말은 생길 수 없는 말이다. 음식은 취향의 문제이지 맛의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의 뇌는 멈추어 있지를 못한다. 뇌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집중이 일으키는 감지에 따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두 가지의 존재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는 경험을 가진 느낌인 ‘나[我]’ 이고, 하나는 어디에도 치우칠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의 맛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無]’ 이다. 경험적인 나라는 것은 관념적인 ‘나[我]’ 가 되지만, 치우침 없는 나라는 것은 관념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나[無]’ 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감지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궁 희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4호 | 17 | 전면광고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

010-3640-3128

암자 (급) 안내

-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릉 5분 거리)
- 공기 좋고, 바다뷰 일품
- 대 지 : 407평, 건평 1.2층 70평
- 주 택 : 1층 방 3개, 화장실 2개, 2층 큰방, 욕실, 법당
- 100m 지하수 완비
- 가 액 : 6억원(동해 용왕기도터)

010-3000-535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5천만원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 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 2층 콘크리트 건물, 1층 : 방4, 주방, 욕실(40평) 2층 : 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 : 5층석탑, 스님 건강상 급매
- 가액 : 3억원

010-2611-65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 대지 : 377㎡ 1층 : 194.72㎡, 2층 : 68.04㎡
- 지목 : 종교,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 가액 : 3억 3천만 원(절충 가능) (부동산 전화 사절)

010-5530-5866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 대지 200평, 임대부지 약 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일억 오천(조정 가능)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급)안내

김해시 안동 6거리
창건 30년, 도량 270평,
매일 재개발로 들썩들썩
가액 11억
보상은 후임자의 몫으로

010-6898-9114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암자터, 명당안내

- 암자, 명상원, 산속찻집, 문화원으로 적합함
- 위치 : 지리산 하동 악양면
- 청학골 전설의 두계곡 물이 합수하여 정원수가 됨(해발 200여m) 100여m 청석 반석으로 물이 감아 흐름
- 482평, 평당 25만원

010-8637-3872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시 내외로 11번길 3-19
- 복층 73평
  3층 : 법당 20평, 고급 재질, 완벽한 시설, 스님방 1, 넓은 주방, 화장실, 샤워장
  4층 : 아주 큰방 1, 작은방 2(살림 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 5백만원, 집기 일체 무료 스님 노환으로 승직을 탈퇴합니다. 사용 중인 가전 전자제품 무료 제공

010-5458-2955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시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인법당 기도처 안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 생활 불편함 없는 시설 완비
- 대지 450평, 하우스 집

화왕산 줄기 이씨 문중땅 임대함
- 권리금 700만 원
- 1년 문중에 20만 원(절충가)

산세 수려하고 맑은 계곡물 흐름

010-6586-7636

암 자 안 내

- 위 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대지 102평, 2층 법당 15평, 1층 생활관 34평
- 가액 : 9천5백만원

010-4156-3779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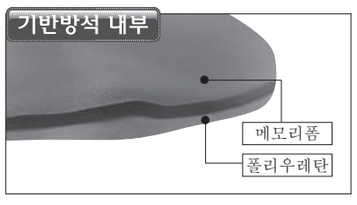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4호 | 18 | 전면광고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출요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책이름 검색해보세요!!

경남 최고 명산
무학산 조그만 절 운영하실
스님, 비구니스님
무속보살님 초대합니다.
남, 여, 인연 찾습니다.

010-3717-5316

- 포교원 할분
  서울 강서 목동 4거리 시장 옆 2층, 25평 남향(가액은 절충)
- 부전 공양주 - 쓸 분, 할 분
- 결혼정보(결혼할 여성 찾음)
  남 45세, 서울 거주
  국가인증 자격증 3개
  골프선수 회사대표

010-5381-1419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010-2078-9595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처님 열반상

- 크기 : 3m 70cm
- 경주 남산석을 사용하여 장인이 조성함(조성한지 10년 됨)
- 희망가 : 1400~1500만원 (조율 가능)
- 경주 통일전 부근 사찰에 모셔져 있음

010-4536-1456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면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지공사 말법과 병겁을 다스리고 일체종교가 하나되는 마음의 세계 우주세계 과학을 초월 육경신속에 감춰진 건강 수명 연장, 성불도통하는 자성명상법 사상 최초 공개

윤달 든 해에 운명공사로 수명 연장하는 장생법이므로 이 법은 부처님 육년 고행법과 달마조사님 9년 면벽비법 명상법은 말과 글 문자 · 염불 · 참선 화두 등으로 찾지 못하는 자성의문 현관과 도덕봉을 열어 잠자는 두뇌와 뇌하수체를 열어 정신의 세계, 심신의 세계, 육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밝혀주는 진광진법 빛을 보는 명상호흡법을 사상 최초에 밝혀주어 수행과 제방성직자 · 비구 · 비구니 사부대중 유불선이 하나되는 마음의 세계를 열어 자성보아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고 병겁에 과학이나 의술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중생구제하소서.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 지구촌에 만종만교가 있으나 모두 마음심자 근본을 모르는 허상일 뿐 자성의문 현관 하나도 찾지 못하는 화두에 감춰진 진법 생명에 근본 자성에 문 현관 자리나 찾고가면 지옥문은 벗어나는 법이지요.



환성 천용진인 태일대종사

■ 입 재 일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밤 해시 ■ 해제 : 3일 금요일 해시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 동 참 비 : 자신의 기근따라 보시 / 농협 029-01-167866 (예금주 : 곽한영)
■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3층 용천사
■ 상담전화 : ☎ 032-502-6625 / 010-9292-3110 / 010-9718-4449



귀 천지공사 유불선일교 육경신 천문도통회 총본산
귀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예성 용천사. 천룡진인 환성 태일 대종사 합장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③ 젊음을 주는 동백꽃차

피를 맑게 하고 어혈 풀어줘
〈瘀血〉

동백나무에서 피는 동백꽃은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피고,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 자생을 한다.

가을에 피는 동백꽃을 추백(秋柏),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동백(冬柏), 봄에 피는 꽃은 춘백(春柏)이라 한다.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꽃가루를 수정하여 열매를 맺어 번식을 해야 하는데, 추운 날씨에는 곤충들이 없어서 '동박새'가 수정을 한다. 동박새를 맞이하기 위하여 동백꽃은 꿀을 많이 품고 있지만, 꽃향기는 없다. 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꽃가루 받이하는 꽃을 조매화(鳥媒花)라고 한다.

꽃말은 '그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이고, 다른 식물이 모두 지고 난 겨울에 피는 동백꽃을 추운 겨울에도 정답게 만날 수 있는 친구에 빗대어 '세한지우(歲寒之友)'라 부르기도 한다.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지지 않고 송이 째 툭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도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데, 이루지 못한 사랑에 비유하기도 한다.

동백나무의 이용 부위는 잎 · 꽃 · 열매로, 잎은 튀각으로 사용하고, 꽃은 차, 열매는 기름으로 사용한다.

특히 종자에는 65% 이상의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동백기름을 불로장생약으로 여겨 진시황(B.C. 246~210년)이 동방의 영주산(제주)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하였다고 한다.

〈약성〉

동백꽃은 성질이 서늘하고, 맛은 달고 맵다. 동백의 성분은 올레인산, 안토시아닌, 사포닌, 루틴, 오메가3(동백기름), 글리세리드 등을 함유하고 있다. 올레인산은 유해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감소시키고, 고혈압과 동맥경화와 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오메가3(동백기름)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항균작용으로 피부 속 진균을 억제시켜 가려움증 아토피를 비롯해 피부질환 증상개선에 도움을 준다. 루틴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마음, 기(氣)작용〉

동백꽃은 간(肝)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사상체질의 구성을 보면, 태음인이 50%, 소양인이 30%, 소음인 20%이고, 태양인은 0.01%라고 한다. 태음인의 꽃차가 많은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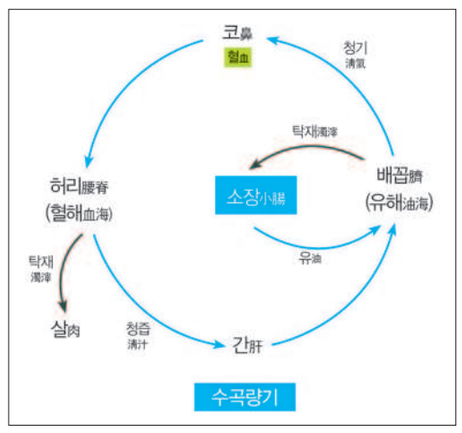
동백꽃은 피를 맑게 하고 어혈(瘀血)을 풀어주며, 산후 출혈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된다. 혈해는 피가 사는 집으로, 혈해의 맑은 즙을 간(肝)이 빨아 들여서 간의 원기를 보익하는데, 동백꽃은 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동백 오일은 올레인산 성분으로 항균작용, 피부보습, 피부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니해의 탁재(濁滓)가 피부를 보익하기 때문에 동백 오일은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 나오는 생기(生氣)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면, 유해(油海)는 배꼽에 있는 기운 덩어리이고, 혈해(血海)는 허리에 있는 기운 덩어리이다. 청기(淸氣)는 맑은 기운이고, 청즙(淸汁)은 맑은 즙이다. 탁재(濁滓)는 탁한 찌꺼기로 몸의 형체를 이루는 것이다. 보익(補益)은 돕고 더하는 것으로, 혈기(血氣)와 음양(陰陽)의 기운을 돕는 것이다.



〈제다 및 음용〉

12월~3월에 피려고 하는 동백꽃 봉우리를 채취한다. 받침을 2개정도 떼어내고 큰 꽃은 수술을 제거한다. 저온에서 꽃받침이 아래로 가도록 올려놓는다. 중온에서 꽃을 그대로 두고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동백꽃차는 2송이에 100℃로 끓인 물 200ml를 넣고 2분 동안 우려 음용한다. 동백꽃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은 소량을 섭취해야 하고, 허약체질은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차를 우림하기 전에 향은 살짝 알싸하면서 구수하고 매콤한 향이 났다. 1차 우린 것에서는 연한 엿기름 맛이 났고, 2차 우린 차의 맛은 끝 맛이 떫었다. 설탕을 묽게 탄 것 같고, 입안에 당기는 맛은 없고, 심심한 맛이다.

또 우리기 전에는 군고구마 단내, 꿀차 향 등 단내가 났다. 첫잔에는 연한 엿질금 맛, 둘째 잔에는 떨떠름한 맛, 셋째 잔에서는 볏짚 삶은 맛, 다 마시고 난 후에는 떫은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입 안에 남은 떫은맛이 혀와 입안에 가득히 퍼진다.

다음으로 소양인이 마셨을 때, 동백꽃차의 향은 고추부각 냄새가 났고, 1차 우린 것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맛은 처음 마셨을 때 약간 떨떠름하였고, 혀 중간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싸~한 느낌이 퍼졌다. 2차로 우렸을 때는 혀가 우리하고 심장에 열 받는 느낌이었다. 차를 마시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두통이 약간 생겼다.(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그리고 심장을 누르는 것 같았다. 확실히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다음으로 소음인이 마셨을 때, 차향은 코끝을 톡 쏘는 향과 약간 쓴 내음이 났다. 첫 번째 맛은 엿기름 맛으로 심심하였고, 끝은 떫은맛이었다. 두 번째 잔은 입 안에서 화한 박하 느낌이 들었고, 세 번째 잔은 떫은맛이 덜하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졌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연예인불자 신행일기 ② 가수 이애란

후배 무명가수들 佛法으로 인도하고 싶어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울고 싶을 때는 무조건 부처님을 찾아간다. 긴 무명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부처님이 작고 여린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

한 30년쯤 전이었던 것 같다. 경상도 어느 사찰에서 산사 음악회가 열려 공연을 하러 동료 가수들과 함께 처음으로 절에 가게 되었다. 유아 세례를 받아 원래 천주교 신자였던 나는 절에 가 본 적도 없었고 불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문외한이었다. 경내에 들어서는데 이전에 접해 본 적 없는 생소한 사찰의 환경과 장엄한 분위기에 눌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서있는데 한 선배가 팔을 잡아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갔다. 그렇게 부처님과 첫 대면을 한 셈이다.

그런데 막상 절에 들어가 앉아 있어 보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지나는 길에 사찰 표지판만 보이면 아무 절이나 찾아 들어갔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참배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들어가서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빌고 삼배를 하고 나왔다. 전국을 다니며 부처님을 찾는 길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길을 지나다 사찰 안내판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발길이 절로 향한다.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던 무명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그야말로 대히트를 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처님 가피다.

강원도 홍천에서 네 자매 중 첫째 딸로 태어나 여의치 않은 가정 형편에도 가수의 꿈만 꾸며 살아왔다. 서너 살, 말을 배울 무렵부터 유행가를 불렀고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남달랐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가수가 되라고 하여 어떻게 해야 가수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가수가 나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가수가 되는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군인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농사를 지으며 네 딸을 키우셨던 아버지는 농사 경험이 없어 실패를 반복하셨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큰딸이라는 책임감으로 부모님께 지원을 받기는커녕 힘든 내색도 할 수가 없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절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었다. 낫게 해 달라고, 몸보다 더 아팠던 마음을 깨끗이 낫게 해 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사진제공=이애란 씨

시간이 흘러도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고비 고비 굴곡이 심해 데뷔 25년쯤 지나 가수의 길을 접으려 했다. 해마다 지방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불러주던 사촌오빠에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며 가수의 길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연을 사양했다. 그러자 사촌 오빠는 지인 중에 작곡가가 있다며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만난 작곡가가 '백세인생'을 작사 · 작곡한 김종완 작곡가였다. "정말 가수가 되고 싶으냐?"라는 물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배우겠다"라고 각오를 보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직 한 사람'이라는 곡을 받았다. 그런데 레슨을 받던 도중 원제목이 '저 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답하리'였던 곡에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앨범을 내며 수록곡으로 같이 실었는데 이 곡이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다. 방송국에서도 전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제목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여, '저 세상이 부르면'에서 다시 '백세인생'으로 바뀌어 히트곡이 되었다.

노래가 유명해지고 이른 바 관련 '짤방'이 대유행을 하면서 각종 예능 및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섭외가 들어오고 광고도 촬영하게 되었다. 너무 좋아서 그 길로 절에 달려갔다. 부처님은 알고 계셨다. 무명시절 가족들이 만류할 때마다 절에 가서 "정말 가수 그만해야 하나" 하며 울며 기도하고 나오면 항상 가수의 꿈이 더 간절했었다. 힘들었던 무명시절을 겪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되어 전국에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가능했다.

이제 무명생활로 힘들어하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부처님 법을 전하고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싶다. 그 오랜 세월 절에 다녔어도 그저 보이는 절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을 뿐 스님을 친견하거나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탄탄 스님과 인연이 되었고 연예인전법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처님 가피를 또 한 번 받았다. 앞으로는 진정한 불자로서 불교 교리 및 예법 등에 관해 익히고, 주변에 무명의 아픔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 후배 연예인들이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돕고 싶다.

전재영(연예인전법단 사무국장)

일일시호일

바이러스 급성뇌염이 앗아간
쥬안이의 웃음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퐁·스엉씨 부부의 1살 딸 쥬안
급성뇌염 이어 간질까지…치료비 걱정에 시름만 깊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❸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 한줄 요약
평온한 마음이 삶을 바꾼다.

잘못된 업력 고치는 방법은 '지혜와 자비심'



삶의 참다운 즐거움이 사랑에서 온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분명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의미하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열리는 마음이다.

부처님 전에 백팔 배 혹은 삼천 배를 올리는 것은 나의 교만심을 참회하고 내 안의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의 자만심과 교만심을 타파하고 나와 남이 따로 없는 경계에 나아 갈 수 있어야한다. 절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절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 삶의 참맛을 만끽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다. 인사는 극히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사소한 것이 전체를 결정짓는 일은 대단히 많다. 상대방에게서 인정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야 한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한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면 정성스러운 마음이 오게 된다.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모든 외적인 활동도 즐겁게 된다.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은 흔히 운을 탓하거나 조상을 탓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게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매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내적인 승화야말로 차원 높은 성공을 약속한다. 스스로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고양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업이란 집착하는 상념과 행위에 의한 악순환을 의미한다. 카르마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인간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해도 할 수 없고 수정도 불가능하다. 인간은 현상계와 실재계, 진제(眞諦)와 속제(俗諦), 탄생과 죽음을 왕래하는 윤회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며, 그 과정 가운데서 현상계의 업이 실재계에서 어느 정도 수정을 받은 다음 다시 육도(인간, 천신,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업의 씨앗으로 있는, 아직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미수정의 부분(전생에서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죄의 부분)을 미리미리 슬기롭게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을 착하고 보람되게 살며 수많은 전생에서 습기에 젖어서 쌓여진 잘못된 업력들을 고쳐가는 방법은 지혜와 자비심이다. 모는 중생의 이로움을 위해 살고자 하는 보리심을 증장하여 보살의 길을 가면 자연히 전생의 업은 정화되고 수정되는것이다. 그렇게 지치지 않는 장영심(長永心: 꾸준하고도 변함이 없이 이어가는 마음)으로 살면 끝내 해탈을 구하여 부처의 자리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전생 윤회의 과정에서 배워온 위대한 지혜에 의해서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고, 하늘처럼 맑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한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릇이 비어 있을 때 채워지듯 참다운 지혜는 공성(空性)을 체득할 때 얻을 수 있다.

공성은 우리에게 친숙한 〈반야심경〉을 읽고 참구하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공성은 쉽게 체득되지 않는다. 공성이 체득되는 순간에 아마도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닐까 짐작한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법의 뜻을 알고 자비를 실천하는 행에 의해서 삶은 편안함과 감사함이 조화되고, 그때에 공성의 지혜가 발현한다. 지혜 이전에 우선 착한 공덕이 쌓여야 하고, 먼저 그릇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끝없는 윤회의 고통 그 본질을 보는 자는 이 세상의 결함과 한계를 아는 자이다. 윤회의 위험을 보는 자는 윤회 속에 살아도 윤회를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런 사람은 보통사람들과 다르다. 더 많이 편안하고, 그리고 지혜롭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 물려받은 습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방해하는데. 진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놓아버림' 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모든 일은 분명함과 깨어 있음으로 행해야 하며, 이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이어가면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확고한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항상 훈련하고 수행하는 데 게으르지 않다. 자기의 무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전생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의 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위에 대한 명상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지니게 되어 미래의 행복을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 직관은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을 길러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어 대상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 **마음 열린 사람 상대방도 마음 열게 해**
> **정성스런 마음가면 정성스런 마음 온다**
> **자신 내적 승화는 차원 높은 성공 약속**
> **보살의 길 가면 전생의 업은 정화 된다**

매사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그날의 생활이 알차게 이루어지고, 시간의 낭비나 정력의 낭비가 없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의 할일을 머리에 떠올려서 손안에 꽉 쥐고 정신을 역할에 집중시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면, 자기 암시를 일으켜 에너지가 일어나 추진해 나기는 능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에 그 행위의 성공이나 실패 등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 것이며, 초조한 마음이나 게으름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일을 해야 한다. 일 자체가 즐거워 열중하다 보면 어느 사이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명상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니 거기에 잘 적응해 나가게 된다. 이것을 관법(觀法)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요리사는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요리를 해내느냐에 집중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에만 집중하여 그려내는 그림이라면, 그러한 요리나 그림에서는 살아 있는 숨소리가 들릴 것 이다.

인간의 모든 역사와 문화의 창조는 인간정신의 깊이에서 온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뜻밖의 손해를 보게 되는 원통하고 분한 경우가 많다. 심하면 그로 인해 화병까지 나는 것이 보통사람이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보면 손해를 본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더 큰 손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때에 이러한 마음 바꾸기 의식 활동은 심층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심층의식에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그 마음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명상의 영역이다. 명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자연히 정신 집중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정신 집중에 들면 자기가 택한 주제를 잊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명상 훈련이다.

호흡명상은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만 마음을 둔다.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이 외부로 끌려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오직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서 미묘한 느낌이 전해진다. 이렇게 호흡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코에 와 닿는 미묘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정신이 코에만 쏠리어 다른 것에는 관심이 가지 않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 앉는다. 이때의 호흡은 매우 가늘고 길게 어우러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호흡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은 가늘고 길어진다. 일반인은 숨이 들고 나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리듬 호흡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숨이 들어올 때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숨이 나갈 때에는 부교감신경에 자극을 준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신경이 긴장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신경이 안정된다. 그러므로 숨을 내쉬는 것을 주로 하는 호흡을 하도록 평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교란 마음을 닦는 공부라서 교리를 너무 몰라도 분간을 잘 못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도 실천하는 닦음이 별로 없으면 체험이 부족해서 바르게 보지(正見)를 못한다. 마음은 탁 트여 개운해져서 바르게 볼 수는 있다 하여도, 더불어 사는 세상 이치를 넓게 두루두루 통해 볼 수 있는 보리심(菩提心)에 이르지 못하면 분명한 분간을 할 수 없다. 불교공부는 교리풀이와 행함의 과정,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야한다. 부처님의 교리를 바로 알고 올바로 닦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행과 풀이하는 해석이 같이 나란히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실천으로 얻는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 곧은 마음,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다.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분별과 집착을 떠난 평온한 마음이 곧 도량이 되는 것이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본방을 놓친 그대에게..

더욱 기억하기 쉬운 방송시간!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2023년 1월 2일 부터)

본방송 당일 재방송!! 그래도 못 보셨다면 주말 찬스!!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2:30



철학자 강신주의 중국 선종 무문관의 화두 이야기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 토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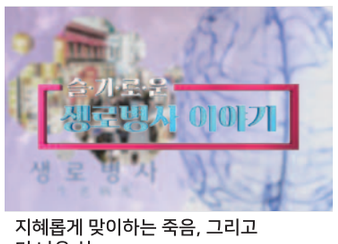
문광스님이 쉽게 해설하는 선문염송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 일 14:00



지혜롭게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더 나은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BTN불교TV 최고인기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22:00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1:00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4 호 현대불교
2023년 2월 22일(음 2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여기저기다 착을 두지 말고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 자기한테 다 맡기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우리는 작위(作爲) 없는 바로 자유인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떠한 집착을 한다면 그냥 가차 없이 허용치 않는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뭐, 이런 거는 잘못했으니깐 내가 이거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좀 해 보세요, 어떤가. 뜨거운 물이다 찬물이다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깐요. 먹어 봐야 알죠?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의 떡과 유의 떡을 한데 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거와, 유의 떡도 착이 끼어 가지고 요것은 요렇게 먹고 조건 조렇게 먹고 하며 그것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할까요? 허허허.

이거를 잘 듣고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그대로 듣고 보는 그 자체가 그대로 여여함이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은 그냥들 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들 사는 거와 함이 없이 살림을 하는 거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기저기다가 착을 두지 말고 무조건 못났든 잘났든 자길 믿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한테 그냥 다 맡기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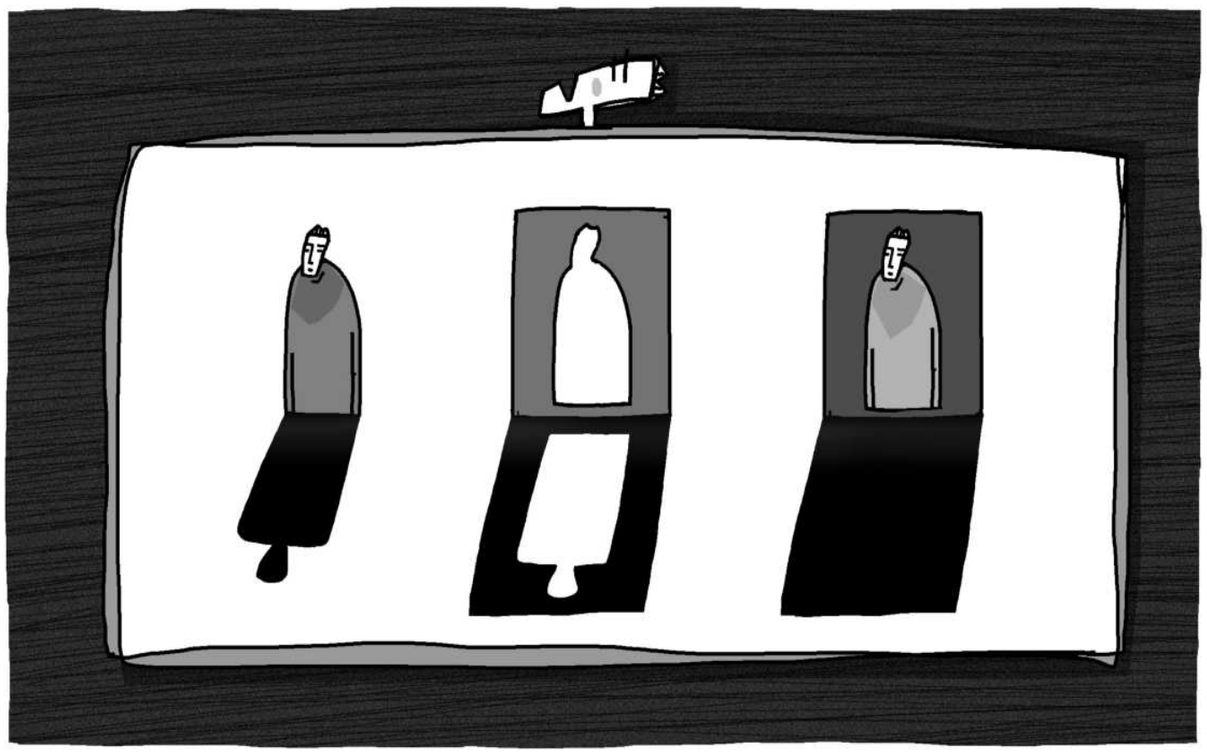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스님이 가르쳐 주신 도리와 스님이 애끓게 가르치신 그 고마움을 늘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가르치신 도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 도리에 접하기 전에 저는, 남들은 겉으로 편안하게 보인다고들 했지만 제 속으로는 적과 동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려서 상대와 부딪쳤을 때는 물론이고 저 혼자 있을 때도 늘 속으로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현재는 제 마음속에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을 묻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럽고 깨끗하고 이걸 너무나 또 잘 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 볼까 하고 곰탕 국물에 바퀴벌레가 녹아 있어도 그것만 건져 내고 먹어 봤고, 똥파리가 빠져서 뱅뱅 돌아도 그걸 건져 내고 먹어 봤습니다. 그전에는 밥 위에 파리가 조금만 앉았다 가도 몇 숟가락을 덜어 내야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수행을 해 가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욕심이 많아서인지 어느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관둬 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법문을 받자옵고 더 질문을 드릴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에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이 공부를 해 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빨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걸 놓으면서도 나름대로 한편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욕심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 분수대로 자기가 능력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겠죠. 지금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인공, 자기한테 되놓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한테 그냥 다 놓듯이, 현재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게 바로 삼심이 일심으로 공했으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한테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자체, 자기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놓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네가 하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너만이 건강하게 이끌 수가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화목을 도모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공을 얍삽하게 보진 마십시오, 포괄적인 자기니까요.

질문자1(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고 관하여 보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 스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둘을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아이,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몸부림 안 치게 생겼나? 아휴! '네놈으로 인해서, 네놈으로 해서 이게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놈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딴 놈이 거기 개재하는 게 아니니깐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그놈이 지금 모두 하고 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부처님더러 요놈 조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 제 놈이 한 거니까 제 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 요거 작업부터 해야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안 해 놓고 밥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씻어서 밥을 해서 다 해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떠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떠먹을 때 맛을 알죠. 이건 해 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살아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번 선의 칼을 뺀 거와 같이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냥 길 수는 없다고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네가 일을 저질러서 전부 요렇게 살게 만들어 놓고, 또 네가 그렇게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도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 놈한테다 제가 한 일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소릴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고 살랍니까? 회답이 아주 말끔하게 씻어지진 않았지만 공부한 것도 말끔히 씻어져서 공부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잘 해 보신다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잘될 겁니다, 하하하.

☞ 22면으로 계속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둘로 보지 마십시오

☞ 21면에서 계속

질문자2(남) 불법과 큰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도반들과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는 지금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마음 주인공을 처음 접하는 초발심 때는 믿고 맡기는 것이 상당히 쉬웠고 그 결과 일이 잘 돌아가므로 신바람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믿고 맡기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의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미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뭉쳐진 현재 '나' 때문이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공부가 잘 안되는 것도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공부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을 거울삼아서 습이 나오는 대로 되놓고 있습니다마는, 나의 습은 심야와 같이 깊어 청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얼마만큼까지 가야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수억겁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업이 녹는 도리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말씀하고 마이크를 놓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를 그렇게 들었다가 놓고, 제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자2(남) 저입니다.

큰스님 그렇죠? 그런데 자기인 거를 번연히 알면서 자기 탓이라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자기 탓이라고 합니까?

질문자2(남) 모든 가르침을 받자옵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느덧 예전부터 쌓아온 습이 순간순간 나올 때는 '내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어느 한 가지 경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습이 나오고, 몰랐던 습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꺼내서 맡기고 되놓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하나하나 습이 없어져 가면서 내가 도반들과 더불어서 청정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때면 기쁨도 맛봅니다. 큰스님께서는 테이프에 입력되어진 모든 습을 다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나한테 닥치는 것이 그대로 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또 그냥 생활이 그걸 끊어 버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와야 내가 습득을 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나온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습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거기 놓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걸 없앤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인 것이지, 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 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자꾸 하는데요, 나는 그래요. 살아 있는 동물이라면 어떠한 거든지 보면, 들으면,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고 좋고 그것만 아니까, 정히 나쁜 거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아, 이 주인공 놈이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에 그냥 막혀 가지고는 쩔쩔매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 나와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허허허. 아니, 좋은 생각을 해서 습이라고 안 그랬더라면 좋은 행이 그대로 나오고 좋은 경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건 또 습이구나, 요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뭡니까? 저 무학 대사가 꿈 해몽한 이치요. 이성계의 꿈 얘기 한 거 있죠? 만약에 무학 대사가 그 꿈을 그대로 나쁘게 해석을 했다면 나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이끌어 주니까 그냥 지금 말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냥 우수수 다 져 버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어.' 하고 모두 탄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 절대로 꿈이 이렇다고 해서 언짢아하지 말고 바꿔서 자꾸 써라.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꿔서 새 물로 쓰고 이렇게 자꾸, 맛없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 먹어라.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자재하질 못합니까? 돈이 들어서 자유자재 못 합니까, 누가 막아서 자유자재 못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어떤 양반들은 꿈을 꾸고선 "아이구,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 생각이면 바꿔 쓸 거를 글쎄…. 하여튼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주인공 놈이니까, 하하, 그냥 주인공 놈이 과거도 살았고 현실도 살아나가니까 그저 과거 것이든 현실 것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주인공, 네놈이 해결해!' 하고 다 거기다 맡기세요. 내가 있다고 세우지 말고요.

질문자3(남) 저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믿고 맡기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어떤 대상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아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성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둑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밤새도록 안달을 하면서 둑을 쌓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상대방 경쟁사라든지 경쟁자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 사전에 사사건건 모든 것을 점검을 하면서 또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가족들 간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이라는 것과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글쎄, 자식들 때문에 안달을 하든 또는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둑이 무너져서 안달을 하든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었었나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열 번 뛸 거 한 서너 번밖에 안 뛰거든요. 그렇게 뛰면서, 하는 것을 그대로 주인공이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서 나는 이렇게 뛰고 이러는데 주인공 따로 또 두고…, 그럼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되잖아.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습이 돼서 이렇게 뛰는구나. 이거 주인공한테 다 놓지 않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이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냥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또 사업을 위해서 뛰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렇게 지금 하고 가는 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것은 자기더러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둘로 보질 말아요. 둘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나는 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뛰고 지금 가고 있잖아! 몸뚱이는 주인공 시자니까. 마음의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뚱이와 생명과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나는 착이 있고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뛴다고 생각질 말고 그대로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둘로 볼 것도 없고요.

질문자4(남) 큰스님의 무량광대하고 대자대비하신 법석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인연과 주인공 자리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조상님과 큰스님, 주인공 자리 그리고 제가 둘이 아님을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새해맞이 촛불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그야말로 마음의 촛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예를 들어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가령 삼형제가 함께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촛불재를 모실 때 어떤 한 분만이, 예를 들어서 큰형만 모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촛불재도 백중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재를 모시는 등 여러 번의 행사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뜻깊은 행사를 어떤 형제가 대표로 하는가, 아니면 한 번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큰스님의 법음을 받들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각기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가요. 대신 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컴컴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제각기 각자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구가 오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에 그 한마음으로서 대신하는 거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이 모든 유의 법이나 무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래도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이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든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지요. 아들이 뭐, 둘이나 되나요? 단 하난데, 그냥 공부를 영 안 해서 남을 따라설 수가 없어요.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 촛불재를, 그때도 했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 소릴 듣고 그냥 아들의 촛불을 저녁마다 자기가 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년 내지 몇 개월 안 가서 물리가 터져 가지고 그 반에서 일등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한 것만큼 내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뇌가 컴컴했던 것이 그렇게 밝아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끔들 촛불재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글쎄, 자식들때문에 안달을 하든 사업때문에 안달을 하든
>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합니까.
>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놈이 하는 것라니까요.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불교 기초훈련에 전념하자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

매체 통해 튀르기예 지진 접하며
잠시 한국불교와 불자 모습 반추

승가와 재가자 무너지지 않으려면
불교 삶 강화해야 할 필요성 느껴

물질 아닌 법상속자로 살아가는 일
이 시대 실천해야할 불자 기초훈련

매체를 통해 튀르키예에 지진으로 무너진 수많은 붕괴 건물을 보고 수만의 사망자 소식을 생생하게 듣는다. 바다모래 위에 고층빌딩을 짓고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인간은 기술능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연재해조차도 피하지 못해 고스란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큰 피해는 반복되는 지진 위험에도 튼튼한 기초와 골조를 갖춘 내진용 건축물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재앙을 보며 잠시 한국불교와 불자의 모습을 반추해본다. 불교 내에서도 승가와 재가 단체라는 비유적 의미의 건물이 존재한다. 과연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인가? 내외적 조건에 의해 승가와 재가단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가르침과 승가와 재가의 불교적 삶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교에도 집짓기에서의 기초토대와 골조와 같은 기본이 있다. 배움의 기본은 계학, 정학, 혜학의 삼학이다. 뛰어난 신체적 언어적 행위, 뛰어난 마음, 뛰어난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을 쌓을 수 있다고 하셨다. 아래층이 굳건하지 않으면 하중으로 집은 무너지게 된다. 삼학에서 계를 잘 지켜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져야 지혜가 밝아지기에 배움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토대인 계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은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동물의 발자국을 포섭하듯 모든 가르침을 포섭하는 사성제이다. 금강경의 기본관념은 무집착공과 무분별공이다. 이렇듯 부처님의 제자로서 승가와 재가 삶의 기본자세가 존재한다. 특히 부처님께서 승가는 수행과 법담(전법교화)에 전념하며 살아가야 하고, 재가는 보시와 지계, 생천을 위한 공덕행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도제양성, 포교, 역경의 조계종의 3대 지표의 토대와 골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승가와 재가는 불교 기초훈련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승가이든 재가이든 불교의 기본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사회관계에서 세속인의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승가 삶의 기본자세는 소욕지족하는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세속인의 비난이 있을 경우 다시 계를 제정해 위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셨다.

신앙과 수행에서도 자신과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신앙과 수행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는 일에 임해야 한다. 백 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진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불교집단은 개인이나 그룹을 주인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법을 주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 땅에 불교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삼학을 굳건히 하고 사성제를 알아차리고 집착과 분별을 버리고 육바라밀 보살행을 현실사회에 실천해야 한다.

1%, 56, 45 cm 관 안에 자신의 몸과 수의, 종이로 만든 보공을 제외하고 소유한 어떤 값진 것도 넣을 만한 공간이 없음을 여실하게 알아야 한다. 단지 업 따라 왔다가 업 따라가는 사바의 삶일 뿐인데 물질과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해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될 일이다.

소욕지족하며 물질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일은 이 시대에 실천해야 할 불자의 기초훈련이다.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삶, 수행과 법담에 전념하는 삶, 세상에 물들지 않는 부처님의 법제자, 법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훈련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승가는 계율을 지키고, 마음 수행을 하고 지혜를 키우는 훈련, 재가는 보시와 지계와 공덕행의 기초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社說

해인총림 위상 회복 기대한다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원천인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고찰로 '법보종찰(法寶宗刹)'로 불려왔다. 그런 해인사가 신년벽두부터 내홍으로 몸살을 앓았다. 주지 현응 스님이 범계 의혹에 휩싸이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주지 추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해인사는 여러 논란 끝에 주지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참회가 우선이지 주지 선출이 우선이 아니다. 해인총림은 이러한 근신과 참회 후 총림대중의 의견과 종단의 협조 하에 여법하게 후임 주지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계종은 2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응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해인사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이럴 경우 사찰 종무행정의 공백과 혼란 예상됐고, 조속한 후임 주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원장 혜일 스님이 해인사 임회에서 주지 후보로 추천돼 2월 16일 공식적으로 주지 임명장을 받게 됐다.

혜일 스님은 교육원장을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제14·15·17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 종무행정에 밝은 스님으로 평가돼 왔다. 또한 문중 내 평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3원장 중 한명인 교육원장을 해인사 주지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종단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주지로 임명한 것은 해인총림 해인사가 한국불교에 가지는 위치가 크고, 빠른 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종무행정에 밝고, 문중 내 유대감이 좋다고 평가되는 혜일 스님이 주지로 임명된 만큼 해인사가 내홍을 딛고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고 했다. 풍파를 겪고 더욱 단단해진 위상의 해인총림을 기대한다.

전주시, '종교 감수성' 되새기길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과 소통하겠다면서 만남의 장소로 교회를 대부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2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35개 동을 순회하며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2023년 시민과 함께 하는 동 순방' 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일어난 것은 최근 3월 9일까지 일정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일정에 따르면 총 13회 일정 가운데 8회가 교회, 1회가 성당에서 열린다.

동 순방 일정 중 70% 정도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특정 종교 공간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것은, 시민의 종교 자유 침해는 물론,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됨에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특정 종교시설 투표장 설치, 국공립 합창단 종교 편향 등 공공기관의 시민 기본권 침해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종교 감수성' 부족 때문일 것이다.

동 순방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불교계가 공분하고 있다. 시장실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1인 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젠더, 인권, 성인지 감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종교 감수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디 전주시가 '종교 감수성' 을 되새기는 행보를 이어가길 바란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까치 소리, 진여의 소리

깍, 깍, 까치 소리가 들려온다.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베란다 난간에 까치가 앉아 있다. 왠지 올해는 좋을 일이 생길 것만 같다. 까치의 작은 소리에 이리도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것인지.

지금도 지구는 큰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다. 초당 3만 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지구의 소리를 나는 왜 듣지 못할까? 그리스 무녀들은 델포이 신전의 동굴에서 괴상한 우주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하늘을 도는 일곱 별들의 소리를 듣고, 그 혹성에 숫자를 매겨 이를 음표 삼아 하늘의 음악을 만들었다. 하늘의 소리를 표현하는 칠음(七音), 그것이 서양의 한 옥타브를 구성하는 7개 음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호주의 원주민들도 동굴에서 제사를 지내며 지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그들은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지구가 달리는 소리를 불었다.

〈장자(莊子)〉 '제물론' 에서 남곽자기는 하늘의 피리 소리(天籟)를 들어봤느냐고 안성자유에게 물었다. 사람의 피리 소리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의 구멍에서 나오는 사람의 호흡 소리이고, 대지의 피리 소리는 자연에서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피리 소리란 무엇일까? 아마도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일 것이다. 하늘은 본래 없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와 대지를 흔드는 바람으로 가득 찬 곳이다. 텅 비어 있어 모든 것이 들락 달락 할 수 있는 내 본래의 마음자리. 다만 감각에 사로잡혀 분별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여, 그것의 소리만을 듣기 때문에 만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 · 최주현

소리를 뜻하는 음(音)은 선다는 의미의 입(立)과 태양을 일컫는 일(日)이 합성된 글자이다. 온 누리를 밝혀주는 태양은 진리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무명에 잠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준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어왔던 불성(佛性)이 일어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이름에는 '음' 자가 들어 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이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고통을 치유해 준다. 하늘의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다. 하늘의 피리 소리는 만유의 소리. 우리도 마음의 눈을 뜨면 만물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늘의 피리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없는, 마음으로 듣는 진여(眞如)의 소리이다.

까치 소리에서 새해가 밝아오는 소리를 듣는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최초 최고 명품 불자 교육기관]

빛나는승려의길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개원

조계종 대덕스님 강의로 범종단 승려의 위의 · 자질 · 능력 함양을 위해

| 개원식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3시

| 강의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5시 까지 6개월



증 명
서해 흥교 대종사
(前 범어사 전계대화상)



교육원장
심 산 스 님
(흥법사 주지)



운영위원장
자 인 스 님
(길상사 주지)



교 수 사
도 일 스 님
(前 송광사 율원장)



교 수 사
무 애 스 님
(前 해인사 강주)



교 수 사
하 림 스 님
(미타선원장)



후원회장
최 금 식
(선보공업 대표)

| 교과목 | 계율과 위의 · 습의와 의례 · 초발심자경문 · 치문경훈 · 기본선과 명상 · 불교문화 · 시대적 포교와 사찰운영

신입생 모집

| 합동입학식 | 2023년 3월 7일(화) 오후 7시

기초교리학과 (수, 6개월)

■ 학장 평천 범혜스님 (한국불교 대강백 월운스님 전강제자)
불교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

불 교 학 과 (화, 1년)

■ 불교개론 위주로 분야별 명사 초청강의

불교엘리트학과 (목, 1년)

■ 선행스님 (백양사 · 선운사 강주 역임)
원각경으로 보는 깨달음의 지혜 – 상반기

■ 정인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재가불자들을 위한 경전 유마경 – 하반기

문 화 힐 링 과 정

■ 수어반(월) ■ 합창단(월)
■ 다도반(월) ■ 사물놀이단(금)

부동산융합풍수학과 (화, 6개월)

■ 여해스님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본교 전임강사)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월)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 **711-0700**

